

베를린 출장 가이드 · n8n In The Loop 2026

2026.10.12(월) ~ 10.17(토) · [redacted] · 작성 2026-10-07 · 모든 시간은 베를린 현지시간(CEST), 회색 작은 글씨는 한국시간(KST = 베를린 + 7시간)

비공개

한눈에 보기

링크 모음 QR

✈️ 항공 (예약번호 [redacted] · 항공권 [redacted]) Economy Comfort Plus · 위탁 23kg × 1 + 기내 가방 + 개인 가방 가는 편 10/12(월) LH719 인천 11:40 → 뮌헨 17:30 (12h50m) LH1960 뮌헨 20:00 → 베를린 BER 21:05 오는 편 10/16(금) LX977 BER 10:25 → 취리히 11:55 LX122 취리히 12:15 → 인천 10/17(토) 07:40 Perk Trip ID [redacted] · 비용은 n8n GmbH가 Perk로 선결제	🏠 숙소 · [redacted] (4박, 같은 스위트카우방) [redacted] Berlin · 📍 [redacted] Comfort Double/Twin · 조식 포함 예약 ① 10/12 → 10/15 (3박) 공급사 번호 [redacted] / Perk [redacted] 예약 ② 10/15 → 10/16 (+1박) 공급사 번호 [redacted] / Perk [redacted] (포토샷 축이 추가) 체크인 14:00~23:30 마감 · 체크아웃 11:00 예약이 2건이라 체크인할 때 "같은 방 연박"이라고 말하기. 부대비용용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여권 필요.
🏢 행사장 · Wilhelm Studios (10/13, 10/14) Kopenhagener Straße 60-68, 13407 Berlin-Reinickendorf 가까운 역: S Wilhelmsruh (S1-S85), 도보 4~5분 호텔에서 약 20~25분: 호텔 → 도보 6분 → Gesundbrunnen역 → S1 (Oranienburg/Frohnau 방면) 또는 S85, 4정거장 약 9분 → Wilhelmsruh → 도보 5 분 입장: Fliplet Hub 앱 티켓	🍷 포토숍 · [redacted] (10/15) [redacted] Berlin (Kreuzberg) 08:30 ~ 18:00 (캘린더 기준, 하루 종일 비워두기) 호텔 → 촬영장 이동은 제작사가 마련. 세부 일정과 픽업 시간은 아직 안 옴 가 보내주실거 한) 연락: [redacted] (프리스트) / [redacted] (n8n)

입국 규정 (한국 여권) 무비자로 90일 체류 가능. ETIAS는 아직 시행 전이라 신청할 필요 없어요 (EU 공식 사이트 기준). 대신 EES 생체정보 등록(얼굴 사진, 지문 4개, 여권 스캔) 이 첫 생체 입국지인 뮌헨에서 진행돼요. 줄이 길 수 있어서 뮌헨 환승 2시간 30분 중 입국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내리면 바로 입국심사장으로 가세요. 출국 심사는 취리히에서 받아요. (환승 1시간 20분, 바로 이동).

참고 링크 모음 · QR

비공개

이 QR 하나로 모든 링크 열기

Google 문서 "베를린 출장 링크 모음 (In The Loop 2026)"
[redacted] 계정 Google Drive에 있는 비공개 문서예요. 휴대폰에서 이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어야 열려요. 아래 링크 24개가 모두 들어
[redacted]

링크마다 QR이 따로 있어요.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열려요. 길찾기 QR은 대중교통 경로로 열려요.

행사 · In The Loop

 세션 어젠다 (10/14 전체) n8n.io/intheloop/agenda	 Partner Day 안내-타임테이블 (10/13) n8n.io/intheloop/partnerday	 Fliplet Hub 앱 설치 (입장 티켓) hub.fliplet.com/download-fliplet-hu b-lrtag	비공개 최종 참석 확인 폼 (10/9 마감) marketing.app.n8n.cloud/form/c550 3c28-2167-4...
비공개 Partner Day 앱에서 참여 확인 폼 marketing.app.n8n.cloud/form/346b bada-7406-4...	비공개 Discord #in-the-loop-berlin (실시간 공지) discord.com/channels/1506603272 046379198/154...		

이동 · 숙소

비공개 Perk 여정: 항공 + 첫 호텔 3박 (로그인 없이 열림) app.perk.com/share/trip/b760bc2a- cd61-4c21-a...	비공개 Perk 여정 관리 (로그인) ry	비공개 n8n 여행 안내 (공항·교통·택시) app.notion.com/p/n8n/In-The-Loop -2026-Wilhel...	비공개 길찾기: 공항 BER → 호텔 Google 지도
비공개 길찾기: 호텔 → 행사장 Google 지도	비공개 길찾기: 호텔 → 포토숍 [redacted] Google 지도	비공개 길찾기: 호텔 → 공항 BER (10/16) Google 지도	비공개 지도: [redacted] Google 지도
 지도: Wilhelm Studios (행사장) Google 지도	 BVG (베를린 교통권) bvg.de	 Lufthansa (가는 편 체크인, lufthansa.com	 SWISS (오는 편 체크인, swiss.com

포토숍 (10/15) · 기타

비공개 Talent Prep: 포토숍 준비 안내 (Notion) app.notion.com/p/n8n/Talent-Prep- Berlin-Phot...	비공개 의상-사이즈 업로드 Drive 폴더 drive.google.com/drive/u/0/folders/ 1stqAB6r0...	비공개 지도: [redacted] 촬영장 Google 지도	비공개 포토숍 메인 스케줄 Gmail [redacted]
 EU 입국 EES 안내 (공식) travel-europe.europa.eu/ees/en	비공개 In The Loop 앱 안내 메일 Gmail [redacted]		

일자별 타임테이블

10/12(월) · 출국 → 베를린 도착

08:00 KST		공항버스 출발 (캘린더 일정) → 인천공항
~09:40 KST		루프트한자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 23kg 1개 부치기. 최종 목적지 BER까지 연결되는지 확인. 보안검색·출국심사
11:40 KST		LH719 인천 → 뮌헨 (12h50m). 기내에서 베를린 시간에 맞춰 수면 조절
17:30	00:30 KST	뮌헨 도착. EES 생체정보 등록 + 입국심사 (생갠 첫 입국지). 짐은 찾지 않고 국내선 탑승구로
20:00	03:00 KST	LH1960 뮌헨 → 베를린 BER
21:05	04:05 KST	BER 도착 → 짐 찾기 → BVG 앱으로 ABC 1회권 €5 구매
~21:45		FEX BER → Hauptbahnhof (약 23분, 15분 간격) → 지하 22번 플랫폼 S15 → Gesundbrunnen (6분) → 도보 6분 → 호텔 FEX는 이제 Gesundbrunnen에 서지 않아요. 짐이 무겁거나 지연되면 택시 (약 €70~85)
~22:30		체크인 (23:30 마감). 늦어질 것 같으면 호텔에 미리 전화 "예약 2건, 10/16까지 같은 방" 말하기

10/13(화) · Partner Day (초대 전용) · Wilhelm Studios

~07:30		호텔 조식
08:00		호텔 출발 → Gesundbrunnen → S1 → Wilhelmsruh (약 20~25분)
08:30-09:30	15:30 KST	등록 (Fliplet 앱 티켓)
09:30-10:30		n8n 키노트: 여기까지 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 (Jan, 리더십 팀)
10:30-11:00		네트워킹 휴식
11:00-12:30		엠베서더 트랙: 엠베서더 프로그램의 방향 → 커뮤니티를 키우는 베스트 프랙티스 → 패널: 무대에 선 n8n 엠베서더들
12:30-14:00		점심 + Bart Veldhuizen "Building Communities That Matter" (전 트랙 공통)
14:00-14:40		n8n을 남에게 가르치는 법 ★
14:50-15:20		생태계가 함께 일하는 방법
15:30-16:00		네트워킹 휴식
16:00-16:40		좋은 n8n 이벤트를 여는 법 ★ → 서울 밋업 노쇼 50% 문제 질문하기
17:00-17:30		클로징
17:30-20:30		Afterwork in Berlin (장소는 앱에서 확인)

10/14(수) · Ecosystem Day · Wilhelm Studios

08:15		호텔 출발 (조식 후)
09:00-10:20	16:00 KST	Main Stage: 오프닝 키노트 (Jan) → n8n의 다음 장 들여다보기
10:30-12:00		Builders Stage: 라이트닝 토크 연속. 특히 11:00 대부분의 워크플로에 LLM은 필요 없다 (Cloudflare), 11:30 idealo 해커워크 → 프로덕션
12:00-12:30		Main Stage: 에이전트는 시스템의 절반일 뿐 (평가 기준표 제공)
12:30-13:30		점심 · Flow4Gold 부스 구경
13:30-14:15		Flow Room: Feature Kitchen: n8n Agents (좌석 제한 가능성 있음, 일찍 가기)
14:45-15:25		Builders Stage: n8n AI Assistant 구축기 (15:20 세션과 5분 겹침, 둘 중 선택)
15:20-15:50		Sync Stage: ROI를 극대화하는 워크플로 선택하기 (BCG) ★
16:00-16:40		Main Stage: 패널 "자동화 문화를 만드는 법" (Telus, nCino, Bosch)
16:50-17:20		Sync Stage: 에이전트에게는 손이 필요하다 (개인 세컨드 브레인)
17:30-18:00		Main Stage: 클로징 "미래의 일" (Nancy Giordano)
18:00~	01:00 KST	In The Loop 파티 (캘린더 기준 18:00 시작, 장소는 앱에서 확인) · 18:30 Flow4Gold 피날레 (Market)
~22:00		일찍 복귀. 다음 날 08:30 촬영. 촬영 의상과 노트북 미리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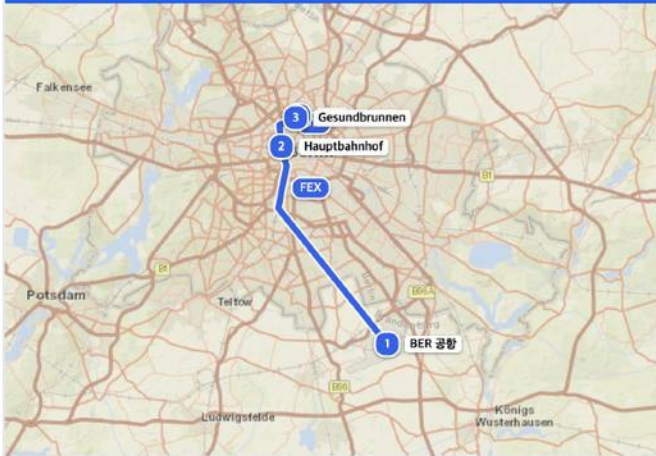
10/15(목) · n8n 포토shoot ·

픽업 시간 미정		제작사가 호텔 → 촬영장 이동 마린 (메일 확인). 직접 가면 택시로 약 20~25분
08:30-18:00	15:30-01:00 KST	n8n Photoshoot · Berlin · 사진가 사진은 n8n 웹사이트 (홈, 채용, 소개, 사람들, 고객 사례)와 SNS에 쓰여요
11:25~		쉬는 시간에 SWISS 온라인 체크인 (LX977, 출발 23시간 전부터) + 모바일 탑승권 저장
저녁		호텔 복귀 (같은 방 연박) · 짐 싸기 · 다음 날 아침 경로 확인

10/16(금) ·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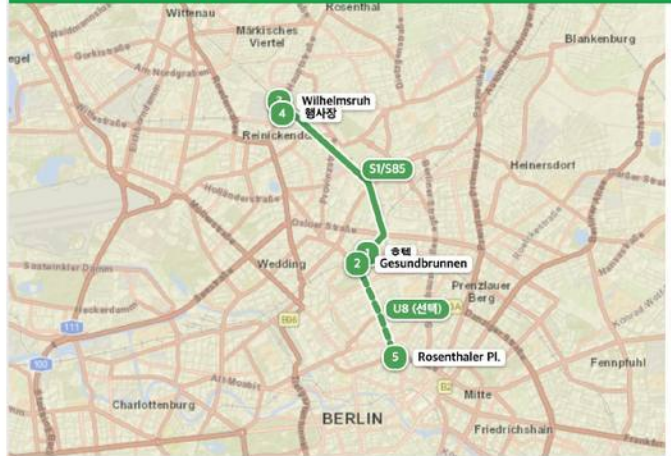
~06:30		조식 (운영 시간은 체크인 때 확인) · 체크아웃
07:00 전		호텔 출발 → 도보 6분 → Gesundbrunnen → S15 → Hauptbahnhof (6분, 이른 아침 20분 간격) → FEX → BER (23분). ABC 1회권 €5
~07:50		BER 도착 · SWISS 수하물 위탁 (인천까지 연결 확인). 택스 리펀드 물건이 집에 있으면 짐 맡기기 전 Check-in Island 7 세관
10:25	17:25 KST	LX977 BER → 취리히
11:55		취리히 도착 → 바로 출국심사 (생갠 출국, EES) → 탑승구 (환승 1시간 20분)
13:15	20:15 KST	LX122 취리히 → 인천 (11h25m)
10/17(토) 07:40 KST		인천 도착

10/12 (월) 도착 · BER →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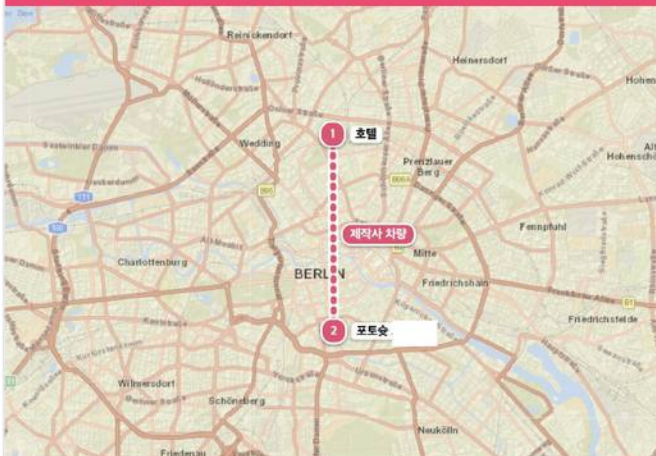
1. 21:05 ① BER 도착 · 짐 찾기 · BVG 앱에서 ABC 1회권 €5
2. ~21:40 FEX 탑승 → ② Hauptbahnhof (23분)
3. 지하 22번 플랫폼 S15 → ③ Gesundbrunnen (6분)
4. ~22:30 도보 6분 → ④ 호텔 체크인 (23:30 마감)

10/13 (화) · 10/14 (수) 행사장 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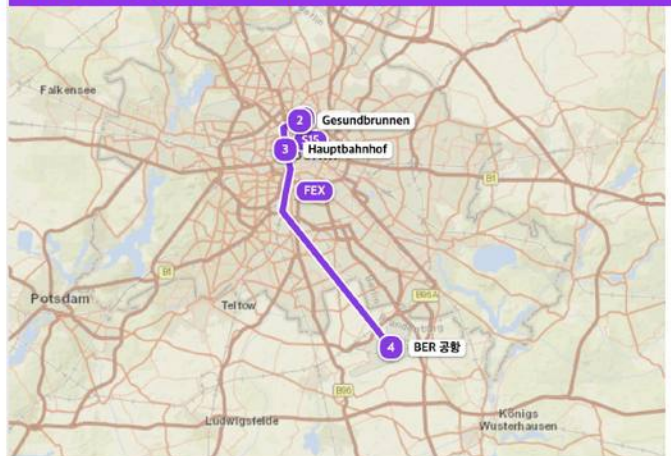
1. 08:00 / 08:15 ① 호텔 → 도보 6분 → ② Gesundbrunnen
2. S1 (Oranienburg/Frohnau 방면) 또는 S85, 4정거장 9분 → ③ Wilhelmsruh
3. 08:30 / 09:00 도보 5분 → ④ Wilhelm Studios (등록 / 키노트)
4. 저녁 10/13 Afterwork 17:30, 10/14 파티 18:00 → 같은 길로 귀가
5. 선택 미테 저녁: Gesundbrunnen → U8 3정거장 → ⑤ Rosenthaler Pl. (단거리권 €2.80)

10/15 (목) 포토sh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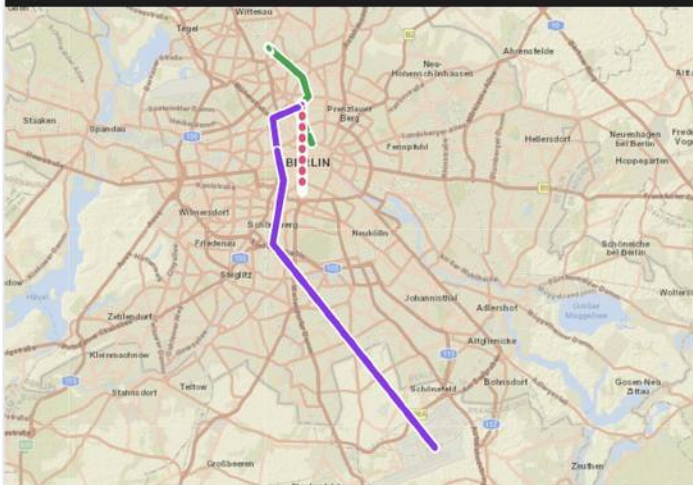
1. 아침 ① 호텔 → 제작사 차량 픽업 (시간은 [redacted] 안내 예정)
2. 08:30-18:00 ② [redacted] 촬영
3. 저녁 호텔 복귀 (같은 방 언박) · 짐 싸기

10/16 (금) 귀국 · 호텔 → BER



1. 07:00 전 ① 호텔 체크아웃 → 도보 6분 → ② Gesundbrunnen
2. S15 → ③ Hauptbahnhof (6분, 이른 아침 20분 간격)
3. FEX → ④ BER (23분) · ABC 1회권 €5
4. ~07:50 SWISS 수하물 위탁 · 텍스리펀드 세관 · 10:25 LX977

전체 한눈에



색 = 날짜

■ 10/12 도착 ■ 10/13-14 행사 ■ 10/15 포토shoot ■ 10/16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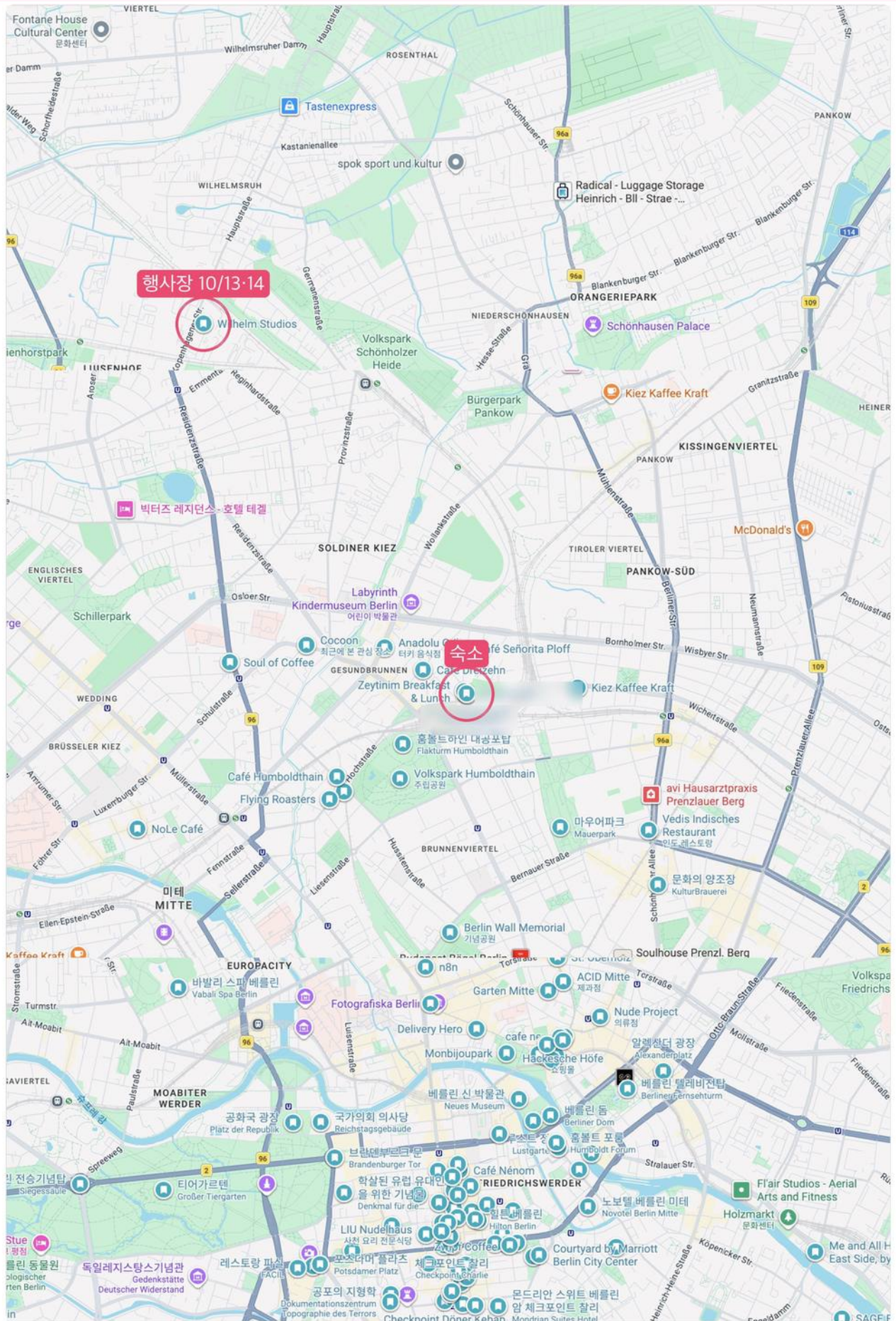
교통권

- 공항 오갈 때: ABC 1회권 €5 (x2)
- 행사장 왕복 4번: 4회권 AB €12.40
- 저녁에 미테도 가는 날: 24시간권 AB €11.20
- 10/15는 제작사 차량이라 교통권 필요 없음

기억할 역 3개

- Gesundbrunnen: 호텔 앞 역 (S1-S15-U8-링반)
- Hauptbahnhof: 공항열차 FEX ↔ S15 갈아타는 곳
- Wilhelmsruh: 행사장 역 (S1-S85)

FEX는 2025년 12월부터 Gesundbrunnen에 서지 않아요. 무조건 Hauptbahnhof에서 갈아타기.



담당자	역할 · 연락처	날짜	대화 요약 (한국시간)
	n8n Senior Brand Manager · 포토shoot 총괄, 항공 변경 처리 ·	7/29	초대: 웹사이트·SNS에 실제 n8n 빌드를 싣는 촬영, 10/15 베를린, 출장비 일부 지원
	프로듀서, 100% Film & Photography (Amsterdam) · 최종 일정, 피아수스 담당 ·	7/30	내가 촬영 내용·일정·지원 범위를 질문 → 지난 Fest처럼 최대 (항공+호텔) 지원 + 앰배서더 무료 티켓
	사무실	7/30	상세 안내: 스토커사진을 대체할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 개인 포트레이트 (자연스러운 컷 + 포즈 컷) + 단체컷 가능. 한 장소에 오피스 느낌의 룸 세팅 여러 개. n8n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물건이 있으면 가져오기
	n8n Community Manager · 출장비 지원 안내 ·	7/31	내가 참석 확정
	스타일리스트 · 추가 의상 관련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음	9/16	확정 안내: 장소 하루 종일 비우기, 본인 스타일 옷 (로고 큰 무의지), 9/28까지 의상 2~3벌 사진과 사이즈 업로드, 노트북 지참. 준비 문서는 Notion "Talent Prep"
참조(CC)	(n8n)	9/17	캘린더 초대 (베를린 09:30-18:00, 내가 기존 귀국편 (10/15 12:50) 총들을 알림 → 귀국편을 10/16로 변경, 숙소는 담당
같이 촬영하는 사람	캐리다 후미, 기주	9/18	내가 10/15 밤 숙소 코백과 Slack 초대 문제 (무료 플랜이라 Slack Connect 불가)를 전달 → 10/15 숙소 책임지겠다
	(n8n 직원, 커뮤니티 멤버, 기업 고객)	9/23	1박 추가 확정 (같은 방 연박). Slack 대신 메일로 의상 올려 공유. 노트북은 세트에 쓸 수 있음
		9/28	내가 사이즈·의상 사진 업로드 완료 → 모두 받음. 스타일리스트가 연락할 수 있고, 최종 일정과 이동은 추후 안내

아직 안 온 것: 최종 촬영 시간표, 호텔+촬영장 픽업 시간. "날짜 가까이 보내 준다"고 함, 10/7 기준 미수신. 10/13까지 안 오면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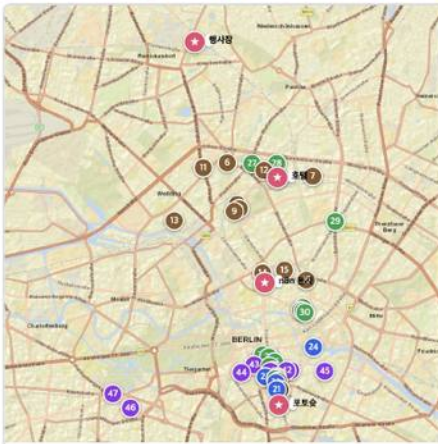
포토shoot 준비물 · 할 일

- ☐ 업로드한 평소 의상 2~3벌 (로고·브랜드 큰 무늬 없는 것) + 어울리는 신발. 구김 없게
- ☐ 노트북 + 충전기. 화면 정리: 알람 끄기, 개인 탭 닫기, n8n 워크플로 하나 띄워두기 (세트 소품으로 쓸 수 있음)
- ☐ n8n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물건 1개 (예: 서울 밋업 굵즈, 직접 만든 3D 프린팅 제품, 밋업 사진)
- ☐ 헤어 정리 도구, 립밤, 여분 셔츠 (하루 종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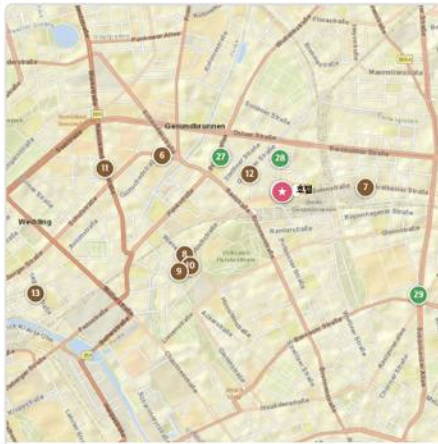
- ☐ 스타일리스트 연락 오면 바로 회신 (메일 확인)
- ☐ 10/14 파티는 일찍 끝나고 컨디션 관리
- ☐ 사진은 n8n 웹사이트 (홈, 채용, 소개, 사람들, 고객 사례)와 SNS에 쓰임. 현장에서 초상권 동의를 받으면 사용 범위와 기간을 읽고 서명
- ☐ 쉬는 시간에 SWISS 귀국편 올라와 체크인 (10/15 11:25부터)
- ☐ 같이 찍는 등과 인사 · LinkedIn 연결 (네트워킹)

내가 저장한 베를린 장소 Google 지도 "독일" 목록 124곳 중 47곳 · QR = Google 지도에서 열기 · 거리는 호텔 기준 직선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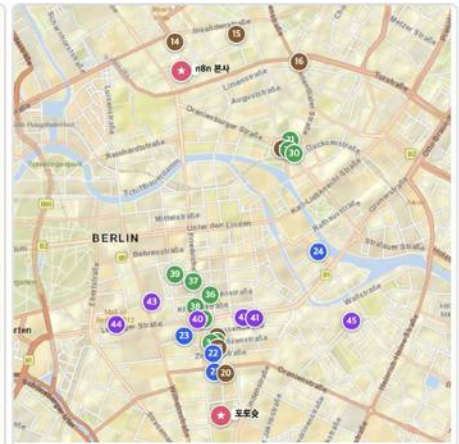
● 숙소·행사장 ● 카페 ● 코워킹·도서관 ● 식당 ● 장보기·쇼핑



전체 · 위 ★행사장, 가운데 ★호텔, 아래 ★n8n 본사·★포토shoot
지도 타일 © Esri, 데이터 © OpenStreetMap contributors



호텔 주변 · 25-26번은 ★호텔 마커 바로 옆



미타·크로이츠베르크 · 46-47번은 서쪽 Zoo역 근처

숙소 · 행사장 · 주요 지정

비공개

호텔 · ★4.5(751)

Wilhelm Studios

이벤트홀 · ★4.5(141) · 호텔에서 3.7km

비공개

(포토shoot 촬영장)

촬영장 · 저장 목록에 없음 · 호텔에서 5.3km

내 메모: 10/15 08:30-18:00

n8n GmbH

소프트웨어 회사 · ★4.1(15) · 호텔에서 2.5km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국제 공항 · ★3.2(52,041) · 호텔에서 21.9km

일하기 좋은 카페 · 호텔 근처 (Gesundbrunnen-Wedding)

6 Cocoon

카페 · ★4.9(211) · 호텔에서 1.2km

내 메모: 출장 작업용 카페 (호텔에서 약 1.2km). 노트북 작업 적합·무료 Wi-Fi, 10시 오픈, 저녁엔 바

7 Kiez Kaffee Kraft

카페 · ★4.8(841) · 호텔에서 0.8km

내 메모: 출장 작업용 카페 (호텔에서 약 1km). 뒤쪽 조용한 공간에 큰 테이블

8 Café Humboldtthain

카페 · ★4.9(354) · 호텔에서 1.1km

9 Flying Roasters

카페 · ★4.9(643) · 호텔에서 1.3km

10 KADO Coffee & Backshop

커피숍/커피 전문점 · ★4.8(79) · 호텔에서 1.2km

11 Soul of Coffee

카페 · ★4.7(703) · 호텔에서 1.7km

12 Café Dreizehn

카페 · ★4.7(239) · 호텔에서 0.4km

13 NoLe Café

카페 · ★4.9(257) · 호텔에서 2.6km

식당 · 호텔 근처

25 Zeytinim Breakfast & Lunch
아침식사 · ★4.8(121)

27 Anadolu Grill
터키 요리 · ★4.8(273) · 호텔에서 0.7km

28 Café Señorita Ploff
브런치 · ★4.7(519) · 호텔에서 0.3km

29 Vedis Indisches Restaurant
인도 요리 · ★4.6(2,453) · 호텔에서 1.7km

카페 · Mitte / 포토슈트 근처 (Kreuzberg)

14 Oslo Kaffebar
카페 · ★4.5(1,558) · 호텔에서 2.2km

15 Distrikt coffee
카페 · ★4.4(2,697) · 호텔에서 2.1km

16 St. Oberholz
카페 · ★3.8(1,956) · 호텔에서 2.5km

17 cafe neundrei
카페 · ★4.6(1,938) · 호텔에서 3.1km

18 North Andes Coffee
커피숍/커피 전문점 · ★4.8(151) · 호텔에서 4.7km

19 ZwiPF Coffee
커피숍/커피 전문점 · ★4.6(674) · 호텔에서 4.6km

20 Junge Die Bäckerei.
제과점 · ★4.2(1,274) · 호텔에서 4.9km

코워킹 · 도서관 (하루 종일 노트북 작업용)

21 betahaus | Kreuzberg
공동작업 공간 · ★4.3(704) · 호텔에서 4.9km

22 Mindspace Zimmerstrasse
공동작업 공간 · ★4.3(38) · 호텔에서 4.8km

23 Coworking Space Berlin Mitte
공동작업 공간 · ★4.7(45) · 호텔에서 4.6km

24 Zentral- und Landesbibliothek Berlin (ZLB) - Berliner Stadtbibliothek
공립 도서관 · ★4.6(570) · 호텔에서 4.0km

식당 · Mitte / Checkpoint Charlie 주변

30 Mustafa's Can Gemüse Kebap
되네르 케밥 레스토랑 · ★4.7(4,278) · 호텔에서 3.2km

31 Curry 61
패스트푸드 · ★4.6(8,638) · 호텔에서 3.1km

32 Com Nam
베트남 요리 · ★4.4(778) · 호텔에서 3.1km

33 Hungry Chicken Gemüse Kebap
되네르 케밥 레스토랑 · ★4.9(319) · 호텔에서 4.5km

34 House of Burgerz
햄버거 · ★4.8(2,118) · 호텔에서 4.7km

35 Huang Lua
베트남 요리 · ★4.6(837) · 호텔에서 4.7km

36 Chengdu Nudelhaus 蜀味记
중식 · ★4.7(510) · 호텔에서 4.3km

37 Samowar Hof
러시아 요리 · ★4.9(324) · 호텔에서 4.2km

38 레스토랑 막시밀리안스 베를린
바이에른 레스토랑 · ★4.5(13,645) · 호텔에서 4.4km

39 Dolcini
이탈리아 요리 · ★4.7(1,006) · 호텔에서 4.1km

장보기 · 쇼핑

40 dm-drogerie markt
드럭스토어 · 호텔에서 4.5km

41 ROSSMANN Drogeriemarkt
드럭스토어 · 호텔에서 4.5km

42 Lidl
슈퍼마켓 · ★4.2(2,292) · 호텔에서 4.5km

43 HIT Supermarkt
슈퍼마켓 · ★4.3(1,912) · 호텔에서 4.4km

44 KPARC(크파르크)
편의점 · ★4.9(163) · 호텔에서 4.6km

45 Nguyen Asian Market
식료품점 · ★4.4(40) · 호텔에서 4.6km

46 HARIBO Shop Berlin
사탕 판매점 · ★4.5(1,192) · 호텔에서 6.4km

47 Bikini Berlin
쇼핑몰 · 호텔에서 6.3km

교통비 아끼는 법 (2026년 요금 기준)

주의: 바뀐 것 3가지

- ① FEX 공항열차는 2025년 12월부터 Gesundbrunnen에 서지 않아요. 지금은 BER → Südkreuz → Potsdamer Platz → Hauptbahnhof 노선이에요. n8n 여행 안내 문서의 경로에 예전 기준이에요.
- ② 7일권(7-Tage-Karte)은 2026년 1월부터 판매 중단됐어요.
- ③ 2026년 1월 1일부터 요금이 올랐어요: AB 1회권 €4.00 · ABC 1회권 €5.00

구간	가장 쉬운 방법
BER → 호텔 (10/12 밤)	FEX → Hauptbahnhof (약 23분, 15분 간격) → S15 → Gesundbrunnen (6분, 지하 22번 플랫폼) → 도보 6분. 총 50~65분 잡기. ABC 1회권 €5. 택시는 약 €70~85
호텔 → BER (10/16 아침)	Gesundbrunnen → S15 → Hauptbahnhof → FEX → BER. S15는 이른 아침 20분 간격이라 07:00 전 호텔 출발 추천. ABC 1회권 €5
호텔 ↔ 행사장	Gesundbrunnen → S1 (Oranienburg/Frohnau 방면) 또는 S85 → Bornholmer Str. → Wollankstr. → Schönholz → Wilhelmsruh (4정거장, 약 9분) → 도보 5분. AB 구간
호텔 → 미테 카페	U8 Gesundbrunnen → Voltastr. → Bernauer Str. → Rosenthaler Platz (3정거장 = 단거리권 Kurzstrecke €2.80). St. Oberholz(16) 바로 앞

내 일정 기준 조합	합계	설명
추천 ① 기본: ABC 1회권 ×2 + 4회권 AB (4-Fahrten-Karte)	€22.40	공항 왕복 €10 + 행사장 왕복 2일(4회) €12.40
추천 ② 저녁에 미테도 가는 날: 그날만 24시간권 AB €11.20	€32.40 (이들 모두)	24시간권은 날짜 기준이 아니라 개시 후 24시간 유효. 10/13-10/14 아침에 개시
WelcomeCard 72h ABC €45.50 + 출국일 1회권	€50.50	관광지 할인을 많이 쓸 때만 이득
Deutschlandticket €63/월	€63	이번 일정에 손해. 정기구독 해지도 번거로움

- 10/15 포토슈트는 제작사가 이동을 마련해 줘서 교통권이 필요 없어요.
- 개찰구가 없고 사복 검표원이 불시에 검사해요. 표 없으면 벌금 €60. 앱 표는 타기 전에 사고, 종이표는 탑승 전에 개찰기(Entwerter)에 꼭 찍기.
- BVG 앱에서 살 때 공항 갈 땐 반드시 ABC 선택. AB 표로 공항 가면 무임승차로 처리돼요.
- 택시는 FREE NOW·Bolt·Uber 앱 두 개 가격을 비교하고 부르기. 일반 택시는 미터 요금(BER 출발 할증 €1.50).

택스 리펀드 (부가세 환급)

- 한 매장에서 영수증 1장당 €50.01 이상 사면 환급 대상이예요. 계산할 때 여권을 보여주고 Tax Free 서류(Global Blue, Planet 등)를 달라고 하세요. 매장 의무가 아니라서 dm·Rossmann은 지점마다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해요.
 - 세관 도장은 베를린 공항(BER)에서 받아요. 스위스는 EU가 아니라서 취리히에서는 못 받아요.
 - 산 물건을 위탁수하물에 넣을 때: 체크인해서 짐표만 붙이고 → 짐을 맡기기 전에 T1 Check-in Island 7 세관에서 도장 → 그다음 짐 맡기기.
- 산 물건을 기내로 가져갈 때: 보안검색 후 세관에서 도장.
- 환급 받는 곳: Global Blue T1 체크인 갤러리 E2 · Planet 보안구역 Marketplace E1 우체통. 세관 줄이 있을 수 있으니 10/16엔 일찍 가기.

가먹기 쉬운 독일 생활 문화

1. 자전거 도로를 걷지 마세요. 인도 옆 붉은 벽돌이나 페인트 칠한 길은 자전거 전용이예요. 자전거가 빠르게 와서 위험하고 목욕이 쉬워요.
2. 빨간불엔 차가 없어도 건너지 않아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무단횡단하면 눈총을 받아요. 신호등 캐릭터가 "암펠만(Ampelmann)"이예요.
3. 식당 물은 공짜가 아니예요. "Still"(탄산 없는 물) 또는 "Sprudel/mit Kohlensäure"(탄산수)를 따로 주문해요. 수돗물은 마셔도 안전해요.
4. 계산은 자리에서. "Zahlen, bitte"(계산할게요) 하면 직원이 테이블로 와요. 팁은 5~10%: 계산서가 €23이면 "25, bitte"처럼 팁을 더한 금액을 말로 해요. 거스름돈을 다 주려면 "Stimmt so". 여럿이면 "Zusammen oder getrennt?"(같이/따로?)를 물어봐요.
5. 현금 €50~100 챙기기. 카드가 많이 되지만 작은 빵집, 케밥집, 화장실, 일부 비어가는 현금만 받아요.
6. 화장실은 유료인 곳이 많아요 (역·백화점 €0.50~1). 카페·식당 화장실은 손님용이예요.
7. 판트(Pfand) 보증금: 병·캔 음료 값에 보증금이 붙어 있어요 (플라스틱·캔 €0.25). 마트의 빈병 반납기(Pfandautomat)에 넣으면 영수증이 나오고, 계산대에서 돈으로 돌려줘요.
8. 마트 계산대는 빨라요. 물건을 직접 벨트에 올리고 앞사람 물건과는 칸막이 막대(Warentrenner)로 나눠요. 봉투는 유료라 예코백을 챙기세요. 계산 후 바로 직접 담아야 해요.
9. 가게에 들어가면 "Hallo"/"Guten Tag", 나올 땐 "Tschüss". 인사 없이 들어가면 무례해 보여요. 만능 단어는 "Danke"(고마워요), "Bitte"(부탁해요/천만에요), "Entschuldigung"(실례합니다).
10. 층수가 하나씩 달라요. 0층(EG, Erdgeschoss)이 한국의 1층이예요. 호텔 "1층"은 한국식 2층이예요.
11. 에스컬레이터는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비워 뒹요. S-Bahn-U-Bahn 문은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12. 밤 22시 이후엔 조용히. 호텔·주택가는 소음에 민감해요. 일요일에는 대부분 상점이 닫아요 (이번 일정은 월~금이라 괜찮아요).
13. 소매치기 조심: Alexanderplatz, 관광지, 붐비는 S-Bahn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앞쪽에 두세요.
14. 박물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아요. 남은 시간에 관광한다면 요일을 확인하세요.

사 올 만한 독일 제품

가격은 독일 매장 온라인 판매가 기준 참고가예요 (매장마다 달라요). 드럭스토어 제품은 dm·Rossmann(지도 40·41번, Friedrichstraße), 과자·초콜릿은 REWE·Lidl(42번)에서 사면 돼요.

 카밀 카모마일 핸드크림 Kamill Classic Hand & Nail Cream 100 ml dm / Rossmann · 약 €1.55 독일 드럭스토어 대표 차가 핸드크림으로 선물용과 여행 중 보습용 모두 인기가 많아요.	 발레아 히알루론 앰플 Balea Beauty Hyaluron Lifting-Kur 7 x 1 ml dm · 약 €4.95 dm 자체 브랜드의 가성비 스킨케어로 한국 여행객 사이에서 특히 많이 언급된다.	 벨레다 스킨푸드 Weleda Skin Food Original 75 ml dm / Rossmann / 약국·유기농 매장 · 약 €8.99 건조한 피부용 독일 내추럴 코스메틱의 대표 아이템으로 휴대용 선물 수요가 높다.
 니베아 독일 오리지널 크림 NIVEA Creme Made in Germany 150 ml dm / Rossmann / REWE · 약 €3.25 할부르크에서 시작한 상징적인 파란 캔으로 독일산 제품을 찾는 여행객에게 친숙하다.	 세바메드 바디로션 Sebamed Body Lotion 200 ml dm / Rossmann · 약 €4.85 pH 5.5 민감성 피부 라인으로 알려져 있어 순한 독일 스킨케어를 찾는 수요가 꾸준하다.	 엘멕스 충치 예방 치약 Elmex Kariesschutz Professional 75 ml dm / Rossmann / 약국 · 약 €5.75 독일 치과 전문 브랜드 이미지와 불소 치약 선호 때문에 여행객 구매 목록에 자주 오른다.
 크나이프 입욕제 Kneipp Bath Salt Deep Relaxation 60 g dm / Rossmann · 약 €1.75 독일식 허브·아로마 입욕 문화와 개별 포장 덕분에 가볍게 사 가는 선물이 인기가 많다.	 미볼리스 마그네슘 발포정 Mivolis Magnesium Effervescent Tablets 20 pcs dm · 약 €1.70 dm 건강식품 자체 브랜드로 가격이 낮고 여행·운동용 보충제로 접근성이 좋다.	 도펠헤르츠 종합비타민 Doppelherz A-Z Depot Vitamins 40 Tablets dm / Rossmann / 약국 · 약 €6.20 독일의 대중적인 비타민 브랜드로 A-Z 종합 보충제를 찾는 여행객에게 익숙하다.
 하리보 골드베렌 HARIBO Goldbären 175 g REWE / Lidl / HARIBO Shop Berlin · 약 €1.19~€1.50 독일에서 시작된 젤리곰 원조 브랜드이며 베를린 HARIBO Shop 방문과 함께 사기 좋다.	 리터 스포트 알펜밀치 초콜릿 Ritter Sport Alpenmilch 100 g REWE / Lidl / 슈퍼마켓 · 약 €1.50~€2.00 정사각형 포장과 다양한 맛으로 유명한 독일 초콜릿 대표 상품이다.	 바홀젠 라이프니츠 버터쿠키 Bahlsen Leibniz Butterkeks 200 g REWE / Lidl / EDEKA · 약 €1.50~€2.20 52개의 틈나 모양 가정자리로 알아보기 쉬운 독일 국민 과자라 선물용으로 무난하다.
 암펠만 베를린 자석 AMPELMANN ANHALTER green Magnet AMPELMANN Shop Berlin (Unter den Linden 등) · 약 €5.95 동독 보행 신호 캐릭터를 활용한 베를린 대표 기념품으로 작고 휴대가 쉽다.	 즈윙링 트윈 폴룩스 중식도 ZWILLING TWIN Pollux 18 cm Chinese Chef's Knife ZWILLING 매장·공식점 / 백화점 · 약 €115 독일 술렁겐 칼 브랜드의 실용적인 기념품으로 주방 용품 쇼핑 수요가 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서류·결제

- ☐ 여권 (생년 출국일 기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 이 출력물 + Perk 확인서 PDF (휴대폰에도 저장)
- ☐ 본인 명의 신용카드 2장 (호텔 부대비용 보증용 포함)
- ☐ 유로 현금 €50~100
- ☐ 해외여행자보험 증서 (가입했다면)
- ☐ 명함 넉넉히 / LinkedIn QR

휴대폰 앱 (설치 + 로그인)

- ☐ Fliplet Hub (행사 티켓 + 일정)
- ☐ BVG Tickets (교통권, 공항은 ABC)
- ☐ FREE NOW 또는 Bolt (택시)
- ☐ Lufthansa / SWISS (탑승권)
- ☐ Google 지도 오프라인 지도 (베를린)
- ☐ Discord (in-the-loop-berlin 채널 실시간 공지)
- ☐ 로밍 또는 eSIM 개통 확인

전자기기

- ☐ 노트북 + 충전기 (촬영 필수, 오픈 마이크 시연용)
 - ☐ 노트북 화면 정리: 배경화면, 알림 끄기, 민감한 탭 닫기. 촬영용 n8n 워크플로 하나 열어두기
 - ☐ 휴대폰 충전기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만 가능)
 - ☐ 이어폰 (기내용)
- 독일 콘센트는 한국과 같은 C/F 타입 230V라 어댑터 필요 없음 (취리히는 환승만)

포토샷 (10/15)

옷 (10월 중순 베를린: 평년 약 7~14°C, 비 잦음)

- ☐ 방풍·방수 겹옷 + 얇은 니트나 플리스 (겹쳐 입기)

생활·건강

- ☐ 상비약 (두통·소화·감기), 개인 복용약

- ☐ 드라이브 폴더에 올린 평소 의상 2~3벌 그대로 (로고·큰 무늬 없는 것), 구김 없이
- ☐ 의상에 맞는 신발
- ☐ n8n과 관련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 하나 (예: 서울 맛집 굿즈, 직접 만든 3D 프린팅 제품)
- ☐ 헤어 정리 도구, 립밤

- ☐ 접이식 우산
- ☐ 오래 걸어도 편한 신발 (행사장 두 곳, 이틀 중일)
- ☐ 행사·파티용 깔끔한 옷 2벌 + 이너 4~5일분
- ☐ 잠옷, 양말·속옷 5일분

- ☐ 시차 대비: 안대, 귀마개, 목베개
- ☐ 세면도구 (기내 액체 100ml 이하)
- ☐ 텀블러나 물병 (행사장)
- ☐ 에코백 (행사 굿즈용)

짐 규정 위탁수하물 23kg × 1. 기내는 가방 1개 + 개인 가방 1개 (루프트한자·SWISS 이코노미 기준 기내 가방 8kg 수준). 보조배터리와 노트북은 기내로. 행사 굿즈 공간을 남겨 두세요.

교통 · 비용 · 연락처

구간	방법
BER ↔ 호텔	FEX (BER ↔ Hauptbahnhof, 23분) + S15 (Hauptbahnhof ↔ Gesundbrunnen, 6분) + 도보 6분. ABC 1회권 €5. 택시 약 €70~85
호텔 ↔ 행사장	Gesundbrunnen → S1 (Oranienburg/Frohnau 방면) 또는 S85 → 4정거장 약 9분 → S Wilhelmsruh → 도보 5분. 총 20~25분
호텔 ↔ 포토shoot	제작사가 이동 마린 (상세 대기 중). 직접 가면 택시
교통권 추천	ABC 1회권 × 2 (공항 왕복 €10) + 4회권 AB €12.40 = €22.40. 저녁에 미테 가는 날은 24시간권 AB €11.20. 자세한 건 "교통비 아끼는 법" 페이지
비용	항공·호텔은 n8n이 Perk로 선결제 (총 €6,000, 일정 변경분 포함).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정산 여부는 확인 안 됨 → 영수증 보관, ambassadors@n8n.io 에 문의

연락처	
포토shoot 프로듀서	[Redacted]
포토shoot n8n 담당	[Redacted] (Senior Brand Manager)
엠베서더 팀	ambassadors@n8n.io · [Redacted] · Discord #in-the-loop-berlin
Taxi Berlin	+49 30 202020
긴급	112 (구급·소방) · 110 (경찰) ·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82-2-3210-0404

10/13 Partner Day · 오전은 트랙 선택

시간	엠베서더 트랙	솔루션 파트너 트랙	노드 파트너 트랙
08:30-09:30	등록		
09:30-10:30	n8n 키노트: 여기까지 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		
10:30-11:00	네트워킹 휴식		
11:00-11:30	엠베서더 프로그램의 방향 ★	GTM(시장 진출) 전략의 진화	실전 노드 개발
11:30-12:00	커뮤니티를 키우는 베스트 프랙티스 ★	n8n 파트너십 비전과 전략	노드 파트너 마케팅 기회
12:00-12:30	패널: 무대에 선 n8n 엠베서더들 ★	기술 파트너 전략: 성장을 위한 설계	사용자가 쓰게 만드는 개발
12:30-14:00	점심-네트워킹 + Bart Veldhuizen "Building Communities That Matter" (전 트랙 공통) ★		
14:00-14:40	n8n을 남에게 가르치는 법 ★	파트너와 함께 엔터프라이즈 가치 전달하기	SAP x n8n 파트너십
14:50-15:20	생태계가 함께 일하는 방법	엔터프라이즈-파트너 제품 로드맵	n8n 파트너 플레이북
15:30-16:00	네트워킹 휴식		
16:00-16:40	좋은 n8n 이벤트를 여는 법 ★	(재방) 파트너와 함께 엔터프라이즈 가치	(재방) SAP x n8n 파트너십
17:00-17:30	클로징		
17:30-20:30	Afterwork in Berlin		

10/14 Ecosystem Day · 세션 58개 (시간순, ★ = 추천)

09:00-09:40 · Main · 오프닝 키노트 ★ 필수

다음 시대를 향한 우리의 비전

Our Vision for What's Next
Jan Oberhauser (n8n)

AI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워크플로 자동화 플랫폼이 갖춰야 할 모습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n8n의 성장은 제품에 대한 결정만큼이나 커뮤니티에 힘입어 왔고, 이제 양쪽 모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오프닝 세션에서 n8n의 창립자이자 CEO인 Jan Oberhauser가 플랫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합니다.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만드는 방식의 변화, 팀이 고민하고 있는 선택과 균형, 그리고 커뮤니티와 제품이 함께 성장하는 동안 n8n의 방향을 이끌 원칙을 살펴봅니다.

앞으로 무엇이 다가오는지, 그 배경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만드는 방식의 변화와 그것이 n8n의 방향에 의미하는 바를 이해합니다 / n8n 커뮤니티가 제품의 다음 방향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 가는지 살펴봅니다 / 창립자께서 직접 n8n의 다음 장을 이끌 원칙을 알아봅니다

09:40-10:20 · Main · 토크 ★ 필수

n8n의 다음 장 들여다보기

Inside n8n's Next Chapter
David Roberts (n8n)

n8n을 사용한다면 무엇이, 왜 다음에 나올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제품의 방향을 형성하는 사용자 요구, 팀이 우선순위를 두는 영역, 현재 로드맵 결정의 배경을 공개합니다.

n8n의 제품 및 디자인 부문 VP인 David Roberts가 최신 추가 기능과 제품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다음 개발 단계가 Jan이 제시한 n8n의 큰 비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를 이끄는 생각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n8n에 최근 추가된 기능을 알아봅니다 / n8n의 비전이 제품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합니다 /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사용자 요구를 파악합니다 / n8n 제품의 다음 단계를 형성하는 집중 영역을 살펴봅니다

10:30-11:10 · Main · 토크

프로덕션용 자율 에이전트 구축: n8n Agents와 Vercel SDK

Building Autonomous Agents for Production: n8n Agents and Vercel SDK
Sindhujā Jayabal (n8n), Lars Grammel (Vercel), Michael Drury (n8n)

n8n이 워크플로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자율적 사용 사례를 위해 새로운 에이전트 구축 방식을 선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n8n Agents를 사용해 프로덕션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디버깅하고, 퍼블리싱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에이전트를 만들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제어와 감사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 현재 제공되는 기능과 앞으로 추가될 기능도 공유합니다.

또한 n8n Agents를 구동하는 Vercel AI SDK의 제작자이자 Vercel 소속인 Lars Grammel이 Q&A 세션에 함께합니다. AI SDK가 탄생한 배경, 에이전트를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아키텍처 선택,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면, 이미 구축에 사용 중인 도구 뒤의 엔지니어링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봅니다.

→ 어떤 사용 사례에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워크플로면 충분인지 이해합니다 / n8n에서 자율 에이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구축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 오래 걸리고 복잡한 작업에서도 에이전트가 한 일을 완전히 파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에이전트를 불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감사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아키텍처 결정을 알아봅니다 / n8n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SDK의 기술적 선택과 트레이드오프를 Vercel 관계자에게 직접 들읍니다

10:30-10:45 · Builders · 라이트닝 토크(15분) ★ 추천

자동 조종되는 사용자 인사이트: 사용자 목소리를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분석하기

User Insights on Autopilot: Continuous, Trustworthy Analysis of What Your Users Are Telling You
Ophir Prusak (n8n), Aniol Peracaula Moner (n8n)

모든 조직에는 이미 원재료가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뷰, 영업 통화, 지원 티켓, 커뮤니티 스레드, 설문 응답입니다.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1. 사람이 수행하는 심층 리서치 분석에 버금가는 답변을 내놓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2. 질문이 생기는 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사람이 그 답변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n8n 내부에서 구축 중인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에이전트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아키텍처를 다룹니다. 리서치 관점에서는 여러 출처의 인사이트를 교차 검증하고(인터뷰, 통화, 커뮤니티, 설문), 일회성 보고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에이전트 주도 분석을 사람 주도 분석과 비교 검증해 결과를 신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10:30-11:15 · Community Lounge · 액티비티

자동화 릴레이

The Automation Relay
Luca Tomasino (n8n)

두 팀이 하나의 워크플로를 만듭니다. 5분마다 키보드 앞의 팀원이 교대하고, 다음 빌더는 캔버스를 읽은 뒤 작업을 이어 가야 합니다.

재미있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워크플로는 이를 만든 사람만 읽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설명 없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멈춘 지점부터 작업을 이어 가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시험해 봅니다.

팀워크와 약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레이스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자동화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팀에 합류해 보세요.

참고: 팀마다 노트북 한 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팀으로 참여하려면 Community Lounge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하세요.

→ 영리한 워크플로보다 읽기 쉽고 스스로 설명되는 워크플로가 중요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 시간 압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화 로직을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 직접 경험합니다 / 처음 보는 워크플로를 쉽게 또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습관을 파악합니다 /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실용적인 이름 지정, 구조화, 문서화 습관을 배웁니다 / 여러분의 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시간 협업 형식을 경험합니다

10:30-11:15 · Flow Room · 피쳐 키친

Feature Kitchen: 자격 증명 관리

Feature Kitchen: Credential Management
Phyllis Noester (n8n), Jonathan Clift (n8n)

워크플로 빌더에게 n8n의 유연성은 큰 장점이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같은 유연성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러 방식으로 자격 증명을 만들고,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n8n 사용이 커질수록 자격 증명 사용을 감사하고 조직 전체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이번 Feature Kitchen에서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증명 설정 및 관리 옵션을 살펴봅니다. 고정 자격 증명, 최종 사용자 자격 증명, 관리형 인증부터 자격 증명 덮어쓰기, 외부 시크릿,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 역할, 공유, 데이터 마스킹까지 다룹니다. 더 세분화된 자격 증명 접근 권한과 중앙 집중형 관리처럼 앞으로 고민 중인 방향도 공유합니다.

현재 대규모 환경에서 자격 증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디에서 현재 모델의 한계에 드러나는지, 그리고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빌더가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무엇이 개선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정 자격 증명, 최종 사용자 자격 증명, 관리형 인증, 외부 시크릿을 포함해 현재 n8n에서 가능한 자격 증명 설정 옵션을 폭넓게 이해합니다 / 정책 설정, 사용자 지정 역할, 공유 권한, 데이터 마스킹 같은 제어 기능으로 조직 전체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더 세분화된 접근 권한과 중앙 집중형 관리 등 자격 증명 관리의 다음 방향으로 검토 중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 대규모 환경에서 현재 자격 증명 관리 방식이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히는지 파악합니다

10:40-11:10 · Automation · 토크

CoE 모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n8n 거버넌스 구축하기

The Center of Excellence Model: Governing n8n for the Enterprise
Mick McGrath (Bitovi)

조직 안에서 AI 자동화는 오래지 않아 한 팀만의 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n8n 사용이 늘고 부서마다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 이를 뒷받침할 공통 구조가 없을 때 중복 작업, 일관되지 않은 표준, 결과를 만 들어 낸 워크플로를 추적할 명확한 방법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Center of Excellence(CoE)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거나 이미 생긴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CoE 모델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니다. 사용 사례를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보안과 인프라를 나중에 덧붙이는 대신 도입 확대에 맞춰 확장하는 방법, 더 많은 사람이 빌드하기 시작할 때 팀을 교육하고 일관된 표준을 지키게 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작업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팀이 하드웨어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공통 표준을 마련한 미국의 주요 통신사 사례, 그리고 전담 조율 역할과 조직 전체 교육을 포함한 Center of Excellence를 공식화해 모든 팀원이 직접 워크플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 주요 세무 준수 서비스 제공업체 사례가 포함됩니다.

→ n8n 도입이 확대될 때 Center of Excellence가 다뤄야 할 내용을 이해합니다 / 중복 작업 없이 여러 부서의 사용 사례를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보안과 인프라를 사후에 덧붙이는 대신 도입 확대에 맞춰 확장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팀을 교육하고 일관된 빌드 표준을 지키게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여러분의 조직에 Center of Excellence를 도입할 실질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10:45-11:00 · Builders · 라이트닝 토크(15분) ★ 추천

설계부터 내구성을 갖는다: n8n의 새로운 실행 엔진

Durable by Design: Inside n8n's New Execution Engine
Iván Ovejero (n8n)

n8n은 모든 단계를 내구성 있게 기록하고 호출 스택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 진행을 이끄는 새로운 실행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며 출시되지 않은 기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곧 선보일 엔진을 미리 살펴봅니다. 높은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동화의 안정성·유연성·확장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현재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다룹니다.

이 라이트닝 토크에서는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 한 명이 새로운 실행 흐름이 높은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워크플로의 안정성·유연성·확장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합니다.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도 솔직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8n의 새로운 실행 엔진이 '설계부터 내구성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 호출 스택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 진행을 이끄는 방식이 워크플로 실행을 어떻게 바꾸는지 배웁니다 / 이 변화가 워크플로의 안정성·유연성·확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고 최신의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11:00-11:15 · Builders · 라이트닝 토크(15분) ★ 강력 추천

대부분의 경우, 워크플로에 LLM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Your Workflow Doesn't Need an LLM (Most of the Time)
Harshil Agrawal (Cloudflare)

빌더들은 데이터 추출, 라우팅, 형식 변환, 요약처럼 네이티브 노드와 목적에 맞게 설계된 도구가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에도 기본값처럼 LLM 노드를 n8n 워크플로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 팀과 프로젝트의 워크플로 구축을 컨설팅하며 같은 패턴이 매번 나타났습니다. LLM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에 토큰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션은 AI 노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 토큰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빌더를 위한 자리입니다. LLM 노드와 네이티브 대안을 사용해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모습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정 규식을 사용하는 Code 노드, 라우팅을 위한 Switch 노드, 웹 추출을 위한 Cloudflare Browser Run 같은 외부 도구를 살펴봅니다. 어떤 경우에 LLM이 워크플로에 들어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언제 LLM 없이 처리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어 가게 됩니다.

→ n8n 워크플로에서 LLM 기반 데이터 추출을 Code 노드와 정규식으로 대체합니다 / LLM 분류 대신 Switch 및 IF 노드로 워크플로 분기를 라우팅합니다 / Cloudflare Browser Run 같은 목적 특화 도구를 사용해 LLM 없이 웹 페이지에서 깔끔한 마크다운을 추출합니다 / 각 워크플로 노드에 LLM이 필요한지, 네이티브 대안이 있는지 평가하는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11:15-11:30 · Builders · 라이트닝 토크(15분) ★ 추천

제품 주도 성장 전략의 자동화 백본 구축하기

Building the Automation Backbone of a Product-Led Growth Motion
Jobi John (CampusESP)

CampusESP는 최근 새로운 AI Assistant 제품군을 출시했지만, 제품 안에서 영업이 진행되는 구조가 없었고 개발팀은 Assistant 자체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어 구매 흐름을 수작업으로 구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표자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구매 신호를 회사 CRM인 HubSpot에 반영하고, HubSpot의 기본 메시지와 영업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자동화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거래가 성사된 뒤 시작됩니다. CampusESP는 과거에 외부 계약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인보이스를 만들고 발송했습니다. 발표자는 이를 n8n 워크플로로 대체해 거래가 Closed Won으로 표시되는 순간 QuickBooks 인보이스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가져오고, 올바른 고객과 청구 담당자를 찾아내며, 인보이스 세부 정보를 HubSpot에 다시 기록합니다. 이 자동화가 PLG 전략에서 작동하자, 각자 고유한 청구 로직을 가진 나머지 네 개 파이프라인으로도 확장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두 가지 자동화와 함께, 자동화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하는 지점과 멈추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지점을 모두 다룹니다.

→ 개발팀의 개입 없이 제품의 구매 신호를 CRM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기본 영업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거래가 Closed Won으로 표시되는 순간 계약 조건과 청구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와 인보이스를 생성하고 발송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각자 고유한 로직을 가진 여러 파이프라인에 하나의 청구 자동화를 확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자동화가 자유롭게 실행되어야 하는 지점과 멈추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지점을 이해합니다

11:20-11:50 · Main · 토크

프로덕션에서 n8n 운영하기: Mercedes-Benz의 플레이북

Running n8n in Production: The Mercedes-Benz Playbook
Michael Deptuch (Mercedes-Benz Group AG)

Mercedes-Benz가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n8n을 도입한 전체 여정을 공유합니다. 약 300개의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로 중앙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한 과정부터, 핵심 사용자 유형을 정의하고 기존·고급 교육, 트레이너 양성 프로그램, 사내 AI 해커톤을 통해 확장 가능한 활성화 모델을 만든 과정까지 다룹니다.

또한 Microsoft 365 생태계와의 통합, 웹훅을 통한 서로 다른 n8n 인스턴스 간 에이전트 연결 등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받는 IT 환경에서 Mercedes-Benz가 n8n을 운영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프로젝트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기 위해 n8n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11:20-11:50 · Automation · 파이아사이드 컷

모든 사람을 위한 AI 만들기: Education for All Foundation과의 대화

Building AI for Every Mind: A Fireside Chat With Education for All Foundation
Daniel Chang (educationforall.ai), Hannah Chang (educationforall.ai), Mariela Zendejas Crosswell (n8n)

이 자리에서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OCD 치료 계획에서 ERP는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즉 세션 사이 숙제로 진행되는 핵심 임상 중재를 의미합니다. 치료사가 곁에 없는 밤 9시, 혼자 침실에 있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FA Foundation은 다른 가족들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 Daniel과 그의 딸 Hannah가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인 OCD Homework Assistant는 n8n으로 구동됩니다. 치료사가 계획을 세우면, 어시스턴트가 실시간 음성으로 아이가 할당된 노출 과제를 이해하고, 시작하고, 완료하고, 기록하도록 돕습니다. 단, 진단을 내리거나 노출 과제를 선택하거나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UCLA와 함께 임상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Daniel은 구축 과정을 설명합니다. 왜 n8n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임상 감독을 단순히 전제하지 않고 워크플로 안에서 어떻게 강제하는지 살펴봅니다. Hannah는 신경다양성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그리고 기술이 다른 신경다양성 아동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청중 대부분이 CRM 레코드를 동기화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근거 기반 임상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기술 스택이 아니라, 그 기술을 중요한 곳에 연결한 사람입니다.

→ 잘못된 결과가 실제 임상적 결과로 이어지는 워크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 검토 단계를 통해 사람의 감독을 추정하는 대신 워크플로의 강제 제약 조건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소규모 비영리팀이 처음부터 임상 도구를 만들 때 워크로드가 가능하게 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11:20-11:50 · Sync · 토크

규제 산업에서 n8n 확장하기: 100만 건의 실행, 3,000시간 절감, 엔지니어링 병목 제로

Scaling n8n Inside Regulated Enterprises: 1M Executions, 3,000 Hours Back, Zero Engineering Bottleneck
Ricardo Neves Braga (ed), M. França (ed)

11:30-11:45 · Builders · 라이트닝 토크(15분) ★ 강력 추천

Hackweek에서 프로덕션 AI 워크플로까지, n8n으로

From Hackweek to Production AI Workflow With n8n
Sinan Selamoglu (idealo internet GmbH), Katharina Papke (idealo internet GmbH)

idealo에서는 AI enablement 팀이 100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n8n 워크숍을 진행한 뒤, 실제 자동화 아이디어를 주제로 사내 Hackweek를 열었습니다. 그중 아이디어는 간단한 프로토타입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콘텐츠팀이 사용하는 프로덕션 워크플로가 되었습니다.

과제는 여러 시장에 걸친 수천 개의 제품 카테고리들을 다루는 리서치 중심 프로세스였습니다. 각 분석에 상당한 수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팀은 모든 콘텐츠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폼 트리거가 있는 셀프서비스 n8n 워크플로를 구축했습니다. 직원이 요청을 제출하면 n8n이 관련 구조화 데이터를 가져오고, AI Agent가 표준화된 분석을 작성하며, 결과가 팀의 기존 지식 관리 환경에 자동으로 게시됩니다. 핵심 패턴은 폼 요청 → 데이터 가져오기 → AI 분석 → 게시입니다.

프로토타입을 프로덕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팀은 AI 품질이 프롬프트나 모델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데이터의 품질과 구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같은 작업에서 여러 LLM을 벤치마킹한 결과 더 작은 모델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프로토타입을 셀프서비스 워크플로로 전환하는 실용적인 패턴을 배웁니다 / n8n 폼 트리거로 비기술팀도 AI 워크플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데이터 품질이 모델 선택만큼 중요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 팀이 비용과 품질 측면에서 여러 LLM을 벤치마킹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 워크플로를 프로덕션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검증, 안전장치, 오류 처리, 관측 가능성을 배웁니다

11:30-12:15 · Flow Room · 피쳐 키친

Feature Kitchen: 통합 생태계

Feature Kitchen: Integration Ecosystem
Jake Ranallo (n8n), Dimitri Lavrenuk (n8n), David Arens (n8n)

이 Feature Kitchen에서는 캔버스가 아니라 AI 어시스턴트나 에이전트가 워크플로를 구축할 때 통합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n8n의 Nodes 팀이 통합 생태계가 기본 제공 노드만 있던 단계에서 검증된 커뮤니티 노드, MCP Registry, 로컬 브라우저 사용, AI 토큰과 서비스를 위한 n8n의 새로운 Gateway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소개합니다.

AI가 구축을 주도하면 통합은 더 이상 워크플로 안의 단순한 단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거나, 회사 지식 기반에서 맥락을 수집하는 등 빌드를 지원하는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현재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통합 생태계가 작업을 방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듣고자 합니다.

→ 기본 제공 노드에서 검증된 커뮤니티 노드, MCP Registry, 로컬 브라우저 사용, 새로운 AI 토큰 및 서비스용 Gateway까지 n8n의 통합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합니다 / AI가 구축을 주도할 때 통합이 단순히 워크플로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웁니다 /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거나 회사 지식 기반에서 맥락을 수집하는 등 통합을 빌드 지원 작업에 활용하는 사용 사례를 알아봅니다

11:30-12:15 · Community Lounge · 액티비티

빌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커뮤니티 오픈 마이크

Builders Don't W8: Community Open Mic
Jacq Vaca (n8n)

수직업으로 막히는 일을 겪을 때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모든 커뮤니티 빌더를 초대해 가장 자랑스러운 워크플로를 공유하고,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나 아주 간단한 자동화로 비즈니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거나 매주 몇 시간씩 아끼고 있는 방법을 들려주세요.

각 발표자는 약 15분 동안 자신이 마주한 문제와 이를 자동화한 방법을 공유하고, 워크플로를 라이브로 시연합니다.

누군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만드는 빌더들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참고: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일 Community Lounge 안내 데스크에서 오픈 마이크 슬롯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빌더에게서 실용적인 자동화 아이디어를 직접 배웁니다 / 더 넓은 n8n 커뮤니티와 팀과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에서 새로운 자동화 영감을 얻습니다

11:30-13:30 · Market · 액티비티

Flowgrammer의 Flow4Gold: 워크플로 전당포

The Flowgrammer Presents: Flow4Gold
Max Tkacz (Flowgramming Studios), Marcel Claus-Ahrens (aicellence)

여러분의 워크플로는 금만큼 가치가 있나요? 워크플로 전당포에 와서 확인해 보세요.

Flow4Gold 전당포에서 n8n 크리에이터는 Max Tkacz(The Flowgrammer)와 Marcel Claus-Ahrens(Dr Pure Eva)에게 자신의 워크플로 템플릿을 라이브로 심사받고, 24K 금과 1트로이온스를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워크플로는 10월 1일 전에 <https://theflowgrammer.app.n8n.cloud/form/Flow4Gold> 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에는 크리에이터가 Flow4Gold 심사위원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으며 실제 금을 놓고 경쟁합니다.

제출할 워크플로가 없나요? 그래도 둘러서 라이브 리얼리티 쇼 촬영을 구경해 보세요.

→ 실제로 작동하는 워크플로가 다들어진 슬라이드 없이, 빌드 과정과 그 이면의 사고까지 라이브로 발표되고 검증되는 모습을 봅니다 /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취약한지에 대해 심사위원이 실시간으로 직접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 보통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빌더들의 트레이드오프와 판단 과정을 이해합니다

11:45-12:00 · Builders · 라이트닝 토크(15분)

수년간 n8n 안에서의 삶

Life Inside n8n Over the Years
Claudia Stiefel (n8n)

n8n은 어떻게 소박한 사이트 프로젝트에서 오늘날의 회사로 성장했을까요? n8n의 VP of Operations이자 세 번째 직원인 Claudia가 n8n의 여정을 만들어 온 사람들, 결정들, 그리고 다소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커뮤니티와 큰 코부, 강한 원칙,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남은 문화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12:00-12:30 · Main · 토크 ★ 강역 추천

에이전트는 시스템의 절반일 뿐

The Agent is Half the System
Claire Knight (n8n)

모든 프로덕션 에이전트 시스템은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의 조합입니다. 에이전트는 추론을 담당하고, 워크플로는 상태와 순서, 정책,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대응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관심과 투자 의 거의 전부가 첫 번째 절반에 쏠려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두 번째 절반이야말로 진짜 제품이며, 이를 제대로 만드는 주체가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웹의 기반이 된 것처럼 AI 스택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control plane이 수행해야 할 여섯 가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identity and access, spend governance, 단계별 policy enforcement, observability, audit and replay, 그리고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human oversight입니다. 공개적으로 실패한 시스템에서 각각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여섯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공개 문서를 바탕으로 주요 에이전트 플랫폼을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직접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n8n도 동일한 기준 아래 같은 표에서 다룹니다.

→ 프로덕션 AI 시스템에서 에이전트가 아니라 워크플로가 진짜 차별화 요소가 되어 가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 control plane이 알아야 할 여섯 가지: 신원 접근 관리, 비용 거버넌스, 단계별 정책 적용, 관측성(observability), 감사·재실행, 사람의 감독 / 공개적으로 실패한 시스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여섯 가지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 공개 문서를 바탕으로 한 주요 플랫폼 점수를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어떤 에이전트 플랫폼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표를 얻습니다

12:00-12:30 · Automation · 토크

시작은 EU부터: 팀 스포츠로서의 Sovereign AI

It Starts With EU: Sovereign AI as a Team Sport
Christoph Bornschein (Capgemini Invent)

Sovereign AI를 향한 여정에는 우려와 불안, 불명확한 정의, 충돌하는 의제가 얹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것이 한 국가나 순전히 상업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국적 연합부터 개별 빌더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의 많은 참여자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이 모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노력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의존과 영향력의 차이를 가르는 요소가 공유된 아이디어와 조직적인 행동인 이유를 살펴봅니다.

12:00-12:30 · Sync · 토크

n8n의 AI SDR 만들기

Building n8n's AI SDR
Josef Hlava (n8n)

n8n은 n8n 위에서 자체 AI SDR을 운영합니다. 이름은 Freddie입니다. V1은 전형적인 멀티 에이전트 패턴이었습니다. 매번 다섯 개의 전문 서브 에이전트(라이선스, 엔터프라이즈 영업, 플랜 조인, 커뮤니티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RAG), 이메일 작성)로 작업을 분배하는 마스터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했으며, 실제로 다섯 개가 모두 필요하든 아니든 매번 호출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V2에서는 서브 에이전트 계층을 스킴으로 대체합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라 허용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에이전트 전체를 프로토타입으로 실행하는 대신, Freddie가 Sustainable Use License 스킴을 도구로 직접 호출하고 각 질문에 실제로 필요한 스킴만 불러옵니다.

이 강연에서는 그 이유와 방법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대화에는 한두 개의 에이전트만 필요했는데 다섯 개를 병렬로 실행하고 프로프트를 보내는 것이 왜 낭비였는지 설명합니다. 스킴이 에이전트를 더 빠르게 만들고 환각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줄인 방법도 다룹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실제 트레이드오프도 있습니다. 스킴은 더 견고하지만, 기존의 Notion 기반 프로토타입보다 즉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없애고 지식 검색을 내부로 가져와 서드파티 의존성을 줄인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없애지 않은 가드레일도 살펴봅니다. Freddie는 여전히 실제 고객 relationship management(CRM)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제 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이며, 여전히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구성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하면서 그 복잡성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양쪽 방식을 모두 시도해 본 경험을 담은 세션입니다.

12:10-13:40 · Builders · 액티비티

노드 빙고

Nodes Bingo
추후 공개

12:30-13:15 · Flow Room · 피자 키친

Feature Kitchen: n8n Assistant

Dylan Jones (n8n), Albert Alises Sorribas (n8n)

n8n Assistant는 자연어 설명을 작동하는 n8n 자동화로 바꿔 줍니다. 원하는 것을 설명하면 채팅에서 함께 계획하고, 만들고, 실행하고, 디버깅합니다.

아이디어부터 첫 성공 실행까지 하나의 자동화를 화면에서 라이브로 함께 만들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멈춰 살펴봅니다. Assistant가 무엇을 몰았고 무엇을 가정했는지, 실행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복구하는지, 워크플로가 완료됐다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다룹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넘깁니다. 이 도구가 어떤 자동화를 가장 먼저 만들고 싶나요? 도구가 만든 것을 게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채팅이 캔버스보다 나은 지점은 어디이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노트북은 필요 없습니다. 의견과 한두 가지 사용 사례를 가지고 오세요.

Assistant의 다음 계획과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합니다.

→ n8n Assistant가 아이디어부터 첫 성공 실행까지 실제 자동화를 라이브로 만드는 과정을 봅니다 / AI가 만든 자동화의 핵심 판단 지점을 이해합니다. 무엇을 몰았고 무엇을 가정했는지, 실행 실패에서 어떻게 복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 AI가 만든 워크플로가 실제로 완료됐다고 믿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 채팅 기반 빌드가 잘 작동하는 지점과 캔버스가 여전히 더 나은 도구인 지점을 알아봅니다 / n8n Assistant의 다음 계획을 살펴보고 방향에 의견을 낼 기회를 얻습니다

12:30-13:15 · Community Lounge · 액티비티

Fox Challenge: 아직 해결책부터 만들지 마세요

The Fox Challenge: Don't Build the Solution Yet
Sebastian Hahn (FreeFlowCode), Ufuk Ören (NeoRebels)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답을 빠르게 찾는 것이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해결 모드로 들어 가면,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보다 처음 떠오른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따르는 데 그치가 쉽습니다. 이 실습형 워크숍에서는 그 긴장감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간단한 LEGO 블록을 사용해 짧은 만들기 과제를 차례로 수행하면서, 사람들이 열린 문제에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드의 결정을 내리는 모드 사이를 의도적으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divergent thinking과 convergent thinking의 차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이유, 실제 상황에 어떤 모드가 필요한지 알아내는 방법을 익힙니다.

Explorer Mode와 Decision Mode 사이를 오가는 간단한 사고 모델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능성을 더 많이 만들어 본 뒤 적절한 것을 해결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divergent thinking과 convergent thinking의 차이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 상황에 Explorer Mode와 Decision Mode 중 어떤 사고 모드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법을 배웁니다 / LEGO 만들기 과제를 통해 사람들이 같은 열린 문제에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지 직접 경험합니다 / 해결책을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 내도록 Explorer Mode와 Decision Mode 사이를 오가는 간단한 사고 모델을 익힙니다 /

13:10-13:40 · Main · 토크

에이전트 램 메모리, 거버넌스, 로직 공유하기: n8n에서 Bayer의 오케스트레이션 패턴

Sharing Memory, Governance, and Logic Across Agents: Bayer's Orchestration Pattern on n8n
Christian Voigt (Avanal), Willi Wendt (Avanal), Gary Simmons (Bayer), Xinkai Li (Bayer)

지난 몇 년 동안 Bayer가 운영하는 모든 주요 SaaS 플랫폼, 서비스 데스크, Finance, HR system of processing은 고객이 이미 보유한 인프라와 데이터 위에 구축하면서도 핵심 플랫폼과 별도로 가격을 책정한 AI 에이전트 기능용 프리미엄 등급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시스템마다 독립적으로 도입되면서 각자 고유한 메모리와 거버넌스 모델을 가진 서로 단절된 에이전트 구현이 생겼고, 서로 재사용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13:10-13:40 · Automation · 토크

성공의 고통: 엔터프라이즈용 내부 에이전트 구축

Suffering From Success: Building Enterprise-Ready Internal Agents
Dana Harrison (Telus), Kevin Ng (Telus)

우리는 PagerDuty 인시던트를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IRIS를 만들었지만, 진짜 결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체에 신속한 인시던트 대응 문화를 확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곧 플랫폼이 단일 도구를 넘어 고도로 확장 가능한 기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TELUS에서 n8n 사용량이 소수의 작고 독립적인 인스턴스에서 수천 개의 워크플로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인프라도 단순히 커지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4,700개가 넘는 워크플로를 유지하기 위해 self-hosted GKE 환경을 빠르게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이 세션은 그 사후 분석입니다. 폭발적인 성장 단계에서 얻은 교훈, 안정성을 어려운 과제에서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꾼 방법, 그리고 현재 TELUS의 여러 팀이 이 패턴을 복제해 각자의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워크플로 10개에서 수천 개로 확장하는 경우에도, 취약한 실험을 회복력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자동화 엔진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얻어 갈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자동화(IRIS)가 어떻게 회사 전체의 더 빠른 인시던트 대응이라는 폭넓은 문화적 변화를 이끌 수 있었는지 이해합니다 / n8n 사용량이 소수의 인스턴스에서 4,700개가 넘는 워크플로로 폭발했을 때 TELUS가 self-hosted GKE 환경을 재설계해야 했던 이유를 배웁니다 / 팀이 안정성을 약점에서 핵심 경쟁 우위로 바꾼 방법을 알아봅니다 / TELUS의 다른 팀들이 이 패턴을 복제해 각자의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모습을 봅니다 / n8n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합니다. 워크플로 10개에서 수천 개로 늘리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10-13:40 · Sync · 토크

GDPR 규제가 매우 엄격한 환경: 독일 도시 행정의 내부

Highly GDPR Restricted Environments: Inside a German City Administration
Keivan Shakory Tabrizi (coompanion)

독일의 한 도시 행정기관은 citizen developer가 내부 및 시민 대상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모델과 외부 API가 없고 Article 9 사례 데이터가 포함된 완전한 air-gapped 환경에서 self-hosted n8n Community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해당 환경에 대한 어떤 자격 증명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VPN도, 읽기 또는 쓰기 권한도 없으며, 자체 직원이 우리에게 전달하기 전에 검열한 데이터만 받습니다. 전문 정부 소프트웨어(Fachverfahren)는 차단되어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므로, 자동화 가치의 대부분은 시스템 내부가 아니라 시스템 주변의 수작업에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러한 제약 안에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비개발자에게 n8n 기초를 가르친 다음, 원격 디버깅을 지원하고 원격으로 총분하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방문합니다. 일주일 안에 실제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빌드보다 사람과 프로세스 작업이 더 중요했던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제한된 환경에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단계적 대응 모델을 이해합니다. 현장에서 가르치고, 원격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돌아가 함께 구축합니다 / 개발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실제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떤 개념이 반복해서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봅니다 / 시민 개발자가 혼자 구축하기 시작한 뒤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실패 유형을 배웁니다 / 서로 다른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환경에서는 기술적 빌드 자체보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사고와 이해관계자 정렬이 중요한 이유를 파악합니다

13:30-14:15 · Flow Room · 피쳐 킨 ★ 강력 추천

Feature Kitchen: n8n Agents

Michael Drury (n8n), Robin Braumann (n8n), Sindhuja Jeyabal (n8n)

n8n Agents는 워크플로와 나란히 작동하는 독립형 에이전트로, 에이전트 중심의 사용 사례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n8n Agents를 간단히 소개한 뒤 n8n의 AI assistant를 사용해 하나를 만들고, Slack이나 Telegram 같은 외부 채널에 연결해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대화를 나눠 봅니다.

이 세션은 Agents와 워크플로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다듬어 가는 실습형 세션입니다. 사용 사례와 원하는 기능 목록을 공유할 준비를 하고 오세요.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사용 사례 적합성: 내 사용 사례에 n8n Agent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율성과 통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워크플로와 에이전트를 어떻게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로드맵 만들기: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를 열어 줄 다음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 n8n의 AI assistant를 사용해 설정부터 실제 대화까지 n8n Agent를 라이브로 만드는 과정을 봅니다 / Slack이나 Telegram 같은 외부 채널에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내 사용 사례에 에이전트가 필요한지, 워크플로로 충분하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 원하는 수준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에이전트와 워크플로를 결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 줄 사용 사례와 기능을 공유해 로드맵을 함께 만듭니다

13:30-14:15 · Community Lounge · 액티비티

빌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커뮤니티 오픈 마이크

Builders Don't W8: Community Open Mic
Jacq Vaca (n8n)

수작업으로 막히는 일을 겪을 때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모든 커뮤니티 빌더를 초대해 가장 자랑스러운 워크플로를 공유하고,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나 아주 간단한 자동화로 비즈니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거나 매주 몇 시간씩 아끼고 있는 방법을 들려주세요. 각 발표자는 약 15분 동안 자신이 마주한 문제와 이를 자동화한 방법을 공유하고, 워크플로를 라이브로 시연합니다.

누군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만드는 빌더들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참고: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일 Community Lounge 안내 데스크에서 오픈 마이크 슬롯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용적인 자동화 아이디어를 배웁니다 / 다른 빌더들과 팀과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 n8n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자동화 영감을 얻습니다

13:50-14:30 · Main · 토크

n8n으로 사내 워크플로 난립을 통제하기

How n8n Brought Our Own Workflow Sprawl Under Control
Romina Da Costa (n8n)

우리 회사의 내부 환경은 수년에 걸쳐 열정적인 빌더들이 만든 약 12,000개의 워크플로로 성장했습니다. 영입 파이프라인부터 전사 회의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빌더가 회사를 떠난 뒤 아무도 기능을 설명하지 못하는 워크플로, 여러 팀의 자동화를 일주일 동안 조용히 망가뜨렸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공유 자격 증명, 그리고 더 이상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문서였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n8n으로 성공한 모든 조직은 결국 이 문제를 만납니다. 거버넌스가 따라오기 전의 성공은 워크플로 난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션에서는 처음부터 가치를 만들어 온 빌더 문화를 멈추지 않으면서 n8n 내부 자동화 팀이 사후에 자체 환경을 통제해 가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축한 장치를 다룹니다. 비즈니스 핵심 워크플로를 분류하는 표준, 소유자가 자신의 작업을 일일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정리 프로세스, 그리고 다른 n8n 워크플로를 문서화하는 n8n 워크플로입니다. 이 워크플로는 대상 워크플로의 JSON을 가져와 LLM에 보내고, 사람이 검토할 초안 문서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또한 이 혼란을 통해 배운 소유권 원칙도 공유합니다. 자동화의 소유자는 자동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워크플로 난립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신호인 경우가 많은 이유와, 성장하는 모든 n8n 조직이 결국 이를 마주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 관리되지 않은 난립이 실제로 초래하는 비용을 사례로 봅니다. 고아 워크플로, 망가진 공유 자격 증명, 문서화되지 않은 자동화가 그것입니다 / 비즈니스 핵심 워크플로를 우선 식별하는 데 사용한 분류 체계를 배웁니다 / JSON과 LLM을 사용해 n8n 워크플로가 다른 워크플로의 초안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워크플로가 고아가 되는 것을 막는 소유권 원칙을 이해합니다. 소유자는 빌드뿐 아니라 프로세스를 소유해야 합니다

13:50-14:20 · Automation · 토크

Webflow가 n8n으로 에이전트 워크플로를 구동하는 방법

How Webflow Powers Agentic Workflows With n8n
Jake Byman (Webflow)

Webflow는 수천만 개의 웹사이트를 구동하며, 고객이 모든 시스템을 한곳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시한 메시지는 ‘문장을 입력하면 작동하는 에이전트를 얻는다’는 것이고, 그 아래에서 실행되는 엔진이 n8n입니다.

반전은 이렇습니다. Webflow에서는 아무도 이 워크플로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LLM이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 항상 빠르게 워크플로를 작성합니다. 우리는 n8n의 워크플로 JSON을 직접 편집하는 대상이 아니라 컴파일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모델은 타임이 지정된 SDK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n8n 자체의 구조 검증기와 신뢰할 수 있는 노드 유형 allowlist를 통과시킵니다. 실패하면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신 다음 생성 시도에 바로 피드백으로 반영합니다. 멀티테넌시는 테넌트당 하나씩 n8n Projects를 사용하고, 트래픽은 hot 및 cold n8n 인스턴스로 분산합니다. hot 인스턴스는 실시간 실행을 처리하고 cold 인스턴스는 백그라운드 부하를 흡수합니다. 무엇이 어디서 깨졌는지, 그리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누구도 워크플로를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어에서 작동하는 n8n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 n8n의 워크플로 JSON이 손으로 편집되는 것이 아니라 타임이 지정된 SDK를 기준으로 LLM이 작성하는 컴파일 대상으로 취급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 생성된 워크플로를 n8n 구조 검증기, 신뢰할 수 있는 노드 유형 allowlist, 실패를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동 재시도하는 피드백 루프를 검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테넌트당 하나씩 n8n Projects를 사용해 대규모 멀티테넌시를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 실시간 실행과 백그라운드 부하를 분리하기 위해 hot 및 cold n8n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방식을 파악합니다

13:50-14:30 · Builders · 토크

에이전트에게 root 권한을 주지 마세요

Your Agent Doesn't Get Root
Jamie Madden (n8n)

이제 모든 팀에는 파일 시스템, 자격 증명, 네트워크 연결에 접근할 수 있는 에이전트 CLI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재앙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물으면, 솔직한 답은 대개 시스템 프롬프트의 한 문단입니다. 그것은 경계가 아니라 요청일 뿐이며, 보안 검토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다른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에이전트는 두뇌만 갖고 손은 갖지 않습니다. 자격 증명 없이 샌드박스에서 실행되고 외부 네트워크에도 접근할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n8n 워크플로로 노출된 것뿐입니다. 기능을 추가하려면 노드를 추가하고, 제거하려면 노드를 삭제합니다. 에이전트 코드 안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체 목록은 승인 책임자를 포함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캔버스에 표시됩니다.

현장에서 세 가지를 시연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차단되는 에이전트, 재배포 없이 추가되는 새 기능, 에이전트가 우회할 수 없는 승인 게이트에서 차단되는 쓰기 동작입니다. 그런 다음 그 게이트를 설득해 통과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립니다. 데모는 NVIDIA의 NemoClaw에서 실행하지만, 이 패턴은 특정 에이전트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프롬프트의 지시는 보안 경계가 아니라 요청일 뿐이며 보안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 사용 가능한 동작이 n8n 워크플로로 노출된 것뿐인 샌드박스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확인합니다 / 네트워크 계층에서 에이전트가 차단되는 장면, 재배포 없이 새 기능을 추가하는 장면, 승인 게이트에서 쓰기 동작이 중단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 어떤 에이전트나 샌드박스를 사용하더라도 이 패턴이 유지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13:50-14:30 · Sync · 토크

수천 개의 커스텀 노드를 향한 여정

A Journey of a Thousand Custom Nodes

Stanislav Cherenkov (Trade Republic), Allan Galera (Trade Republic), Julia Matina (Trade Republic)

Trade Republic에서 n8n은 단순히 웹훅을 연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서로 통신하는 방식의 중추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HTTP 요청을 넘어서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검색 가능성이 무너지고, 패턴이 워크플로에 복사-붙여넣기된 채 조용히 남아며, 누구도 '표준' 버전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깔끔한 REST 서비스처럼 동작하지 않는 내부 API, 종 돌림, human-in-the-loop 단계, 로깅과 오류 처리를 위한 반복적인 보일러플레이트까지 더해지면 균열이 드러납니다.

이 세션에서 Trade Republic의 n8n 플랫폼 팀은 커스텀 노드를 대규모로 구축해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커스텀 워크플로 대신 커스텀 노드를 선택한 이유와, 내부 OpenAPI 사양에서 노드를 직접 생성해 각각을 또 하나의 생성된 API 클라이언트로 취급하면서 지루한 작업을 자동화한 방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구축한 내부 SDK를 살펴봅니다. 로깅, 트레이싱, 인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계층, 반복 패턴의 캡슐화, 노드를 더 쉽게 작성하고 일게 해주는 인체공학적 규칙을 소개합니다.

→ 커스텀 노드가 늘어날 때 발생하는 공통적인 실패 양상인 검색 가능성 저하, 낯은 복사-붙여넣기 패턴, 명확한 표준 버전의 부재를 이해합니다 / 내부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rade Republic이 커스텀 워크플로 대신 커스텀 노드 구축을 선택한 이유를 배웁니다 / 내부 OpenAPI 사양에서 노드를 직접 자동 생성하고 각각을 생성된 API 클라이언트로 취급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 노드 개발용 내부 SDK가 로깅, 트레이싱, 인증, 파라미터 검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 커스텀 노드 구축의 트레이드오프를 파악합니다. 실제 마찰은 있지만 조직의 필요에 맞게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연성도 있습니다

14:00-16:30 · Market · 액티비티

Flowgrammer의 Flow4Gold: 워크플로 전당포

The Flowgrammer Presents: Flow4Gold

Max Tkacz (Flowgramming Studios), Marcel Claus-Ahrens (aicellence)

당신의 워크플로는 무게만큼 금의 가치가 있을까요? 워크플로 전당포에 와서 확인해보세요.

Flow4Gold 전당포에서 n8n 크리에이터는 Max Tkacz(The Flowgrammer)와 Marcel Claus-Ahrens(Dr Pure Eva)에게 워크플로 템플릿을 현장에서 검토받고, 24K 금과 1트라이온스를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워크플로는 10월 1일 전에 <https://theflowgrammer.app.n8n.cloud/form/Flow4Gold> 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행사 당일에는 크리에이터가 Flow4Gold 심사위원에게 만든 것을 발표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며, 실제 금을 놓고 경쟁합니다.

제출할 워크플로가 없나요? 그래도 둘러보세요. 라이브 리얼리티 쇼 촬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작동하는 워크플로가 현장에서 발표되고 설명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듬어진 슬라이드가 아니라 구축물과 그 뒤의 사고 과정에 집중합니다 / 심사위원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취약한지 실시간으로 직접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 빌더가 보통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트레이드오프와 판단을 이해합니다

14:30-15:15 · Flow Room · 퍼처 킨

Feature Kitchen: 에이전트 컨텍스트 레이어

Feature Kitchen: Agentic Context Layer

Simeon Superville (n8n)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에이전트를 차별화하는 것이 모델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컨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지식, 워크플로, 선호, 의사결정은 누적되는 독점 정보 레이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n8n만의 방식으로 이 컨텍스트 레이어를 구축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초기 프로토타입을 선보입니다. 여러분은 피드백을 공유하고 우리가 탐색 중인 여러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좋으면 좋으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구축한 세컨드 브레인이나 AI 운영체제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임도 나옵니다.

→ AI 에이전트에서 모델이 아니라 컨텍스트가 진정한 차별화 요소가 되어가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 n8n 내부의 전용 컨텍스트 레이어가 어떤 모습일지 탐색하는 초기 프로토타입을 확인합니다 / 지식, 워크플로, 선호, 의사결정이 재사용 가능한 독점 컨텍스트로 누적되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 세컨드 브레인이나 AI 운영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배웁니다 /

14:30-15:15 · Community Lounge · 액티비티

워크플로 미스터리 박스

The Workflow Mystery Box

Luca Tomasio (n8n)

참가자들은 20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조각을 배열하고 연결해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든 다음, 각자 3분 동안 관객에게 워크플로를 시연합니다. 관객은 우승자에게 투표합니다.

다섯 명의 참가자는 사전 등록해야 하지만, 당일에는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객은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직접 워크플로를 시도할 수 있도록 JSON 파일도 제공받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싶다면 노트북을 가져오세요.

팀에 참여하려면 Community Lounge Info Desk에서 신청하세요

→ 시간 압박 속에서 서로 맞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같은 노드 세트를 다섯 명의 빌더가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 빠르고 경쟁적인 형식 속에서 n8n 워크플로로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 다섯 명의 경쟁자 중 한 명이 아니어도 제공된 JSON 파일로 같은 미스터리 워크플로를 직접 다뤄봅니다 / 다른 사람들이 같은 퍼즐을 서로 다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노드 연결과 워크플로 로직을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얻습니다

14:40-15:10 · Main · 미팅

추후 공개

Coming soon

세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중입니다. 행사에 가까워지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14:40-15:10 · Automation · 토크

최전선에서 얻은 교훈: 전략적 엔터프라이즈 배포에서 n8n 확장하기

Lessons From the Frontline: Scaling n8n in a Strategic Enterprise Deployment

Marcel Doppelreiter (Accenture)

엔터프라이즈 자동화의 플랫폼을 설치하는 순간 전략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 거버넌스, 확장성, 도입, 비즈니스의 신뢰를 확보할 때 전략적인 자동화가 됩니다.

이 세션에서 Marcel은 현재까지 가장 앞선 엔터프라이즈 n8n 배포 여정 중 하나에서 얻은 실질적인 교훈을 공유합니다. 복잡한 글로벌 조직에서 초기 실험 단계의 n8n을 구조화된 엔터프라이즈 툴아웃으로 전환한 과정입니다. 발표는 '무엇을 구축했는가'를 넘어 대규모 자동화 프로그램의 성공을 실제로 좌우하는 요소인 플랫폼 아키텍처, 거버넌스, 보안, 자격 증명 관리, 모니터링, 활성화, 이해관계자 조율, 고립된 워크플로를 비즈니스 핵심 자동화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운영 모델에 초점을 맞춥니다.

참가자는 규제가 엄격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n8n을 배포할 때 중요한 결정, 트레이드오프, 함정, 반복 가능한 패턴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교훈이 첫 사용 사례에서 확장 가능한 자동화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다른 조직의 여정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플랫폼 설치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자동화를 실제로 전략적으로 만드는 요소를 이해합니다 / 대규모 n8n 롤아웃에서 중요한 플랫폼 아키텍처, 거버넌스, 보안 결정을 배웁니다 / 자격 증명 관리, 모니터링, 활성화가 엔터프라이즈 운영 모델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알아봅니다 / 규제가 엄격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배포할 때 실제로 마주하는 결정, 트레이드오프, 함정을 확인합니다 / 첫 사용 사례에서 확장 가능한 자동화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반복 가능한 패턴을 얻습니다

14:40-15:10 · Sync · 파이어사이드 뱃

대규모 자동화의 자유를 여는 가드레일 구축하기

How to Build Guardrails That Unlock Automation Freedom at Scale

Ravi Kamam (GE Vernova), Susan Moore (GE Vernova), Adli Dittmer (n8n)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는 같은 긴장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동화의 자유를 주면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고, 모든 것을 잡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계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 GE Vernova는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fireside chat에서 Senior Enterprise Architect Ravi Kamam과 Senior GenAI Product Manager Susan Moore는 안전을 중시하는 대형 산업 기업이 엔지니어와 비엔지니어 모두가 실제 자동화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면서도 거버넌스, 위험, AI를 사용해야 할 곳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경영진의 지지, 제한이 아니라 가능성을 여는 가드레일, 그리고 이를 지속하게 만드는 문화 변화에 대해 솔직하고 실용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 혼란이나 위험을 만들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구축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기반 민주화'의 실용적인 모델을 배웁니다. / 자동화의 '위험 구역'을 정의하는 방법과 AI가 절대 100% 정확하지 않을 때 human review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 가장 가치 있는 자동화는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그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 초기의 열기가 사라진 뒤 행동을 바꾸고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인지 알아봅니다.

14:45-15:25 · Builders · 토크 ★ 추천

n8n AI Assistant 구축기: 잘못된 방향과 얻은 교훈

Building n8n's AI Assistant: Wrong Turns and Lessons Learned

Albert Alises Sorribas (n8n)

두 명의 엔지니어가 'n8n 슈퍼 에이전트'를 만들자며 시작한 소규모 프로젝트는 오류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어시스턴트가 되었고, 이제는 n8n 인스턴스를 이해하고 워크플로를 만들고 수정하며, 여러 단계의 작업을 조율하고, 자신의 작업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그 진화 과정의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전합니다. 단순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부터 첫 워크플로 빌드, 멀티에이전트 실험, 오늘날의 더 자율적인 아키텍처까지 n8n AI Assistant의 주요 버전을 살펴봅니다. 사용량과 목표가 커지면서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깨졌는지, 그리고 매년 아키텍처를 바꿔야 했던 이유를 분석합니다.

모델에 충분한 컨텍스트를 출시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트레이드오프, 실패한 접근법, 예상 밖의 교훈을 솔직하게 공유합니다.

→ n8n AI Assistant가 두 사람의 프로토타입에서 자율적인 다단계 시스템으로 발전한 과정을 이해합니다 / 각 확장 단계에서 무엇이 깨졌고 그에 따라 아키텍처를 바꿔야 했던 이유를 배웁니다 / 모델에 충분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면서도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알아봅니다 / 수백 개의 가능한 노드에 걸쳐 유효한 워크플로를 생성하는 문제를 팀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 여러 에이전트를 조율하고 권한을 처리하며 비결정적인 시스템 출력을 평가하는 전략을 파악합니다

15:20-15:50 · Main · 토크

에이전트에서 엔드투엔드 에이전틱 프로세스로: SAP Joule Studio에서 n8n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Level Up From Agents to End-to-End Agentic Processes With n8n in SAP Joule Studio

Devashish Jasani (SAP), Paul Everett (SAP)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일은 쉽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올바른 데이터, 타이밍, 거버넌스, 방향을 안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AI가 막히는 지점입니다. SAP와 n8n은 바로 그 간극을 좁히고자 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SAP는 2026년 가장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AI 파트너십 중 하나의 배경을 공유합니다. SAP가 n8n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이유, 에이전트와 결과 사이에서 시각적 오케스트레이션 캔버스에서 빠져 있던 계층인 이유, 그리고 n8n이 SAP Business Technology Platform의 Joule Studio 안에 어떻게 네이티브로 임베드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인프라 없이 기존 BTP 크레딧으로 실행되는 완전 관리형 환경으로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방법과, 거버넌스 및 데이터 레지던시를 위해 워크플로가 SAP 클라우드 안에 머물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배웁니다.

또한 Joule Studio의 n8n이 독립형 n8n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봅니다. 네이티브 SAP 노드, Joule Agents와 SAP의 grounding context에 대한 직접 접근, 하나의 캔버스에서 SAP 및 비SAP 시스템을 아우르는 에이전틱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기능을 다룹니다.

세션은 Joule Studio 라이브 데모로 마무리합니다. 팀이 단일 에이전트에서 출발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순간에 행동하는 오케스트레이션된 엔드투엔드 에이전틱 프로세스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 SAP가 n8n에 투자한 이유 / BTP의 Joule Studio 안에 n8n이 어떻게 임베드되고 판매되는지 / Joule Studio의 n8n과 독립형 n8n의 차이 / Joule Studio 라이브 데모

15:20-15:50 • Automation • 토크

에이전트 팩토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자체를 팩토리로 바꿨습니다.

We Didn't Build an Agent Factory. We Turned the Enterprise Into One.

Manoj Desai (Albertsons)

모든 엔터프라이즈에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수천 명씩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자신을 AI 에이전트로 바꾸는 일을 소규모 중앙 팀에 의존합니다. 이런 모델은 확장 되지 않습니다.

Albertsons에서는 다른 접근을 취했습니다. 에이전트를 복잡한 AI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판단이 포함된 워크플로로 본 것입니다. 트리거, 컨텍스트, 의사결정, 동작, 예외, 인간 승인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n8n을 시각적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로 사용해 모델, API, 프로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이해하지 않아도 도메인 전문가가 이 구조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생성을 민주화하는 것은 과제의 절반일 뿐이고, 나머지 절반은 신뢰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분산된 에이전트 구축이 중앙화된 가드레일, 권한, 관측 가능성과 공존하는 방법, 그리고 AI의 판단, 결정론적 실행, 인간의 통제가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참가자는 정제된 n8n 워크플로 패턴을 보고, 엔터프라이즈 지식을 거버넌스가 적용된 에이전트로 전환하기 위한 실용적인 청사진을 얻습니다.

→ 깊은 AI 지식 없이 비즈니스 전문성을 에이전트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하나의 워크플로에서 AI의 판단, 결정론적 실행, 인간의 감독을 결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 보안, 거버넌스, 신뢰는 중앙화하면서 에이전트 생성을 민주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n8n이 도메인 전문가, 엔지니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사이의 공통 언어가 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 자신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워크플로 패턴을 가져갑니다

15:20-15:50 • Sync • 토크 ★ 강력 추천

ROI를 극대화하는 워크플로 선택하기

Choosing the Right Workflows to Maximize ROI

Andrej Levin (Boston Consulting Group), Robin Wagner (Boston Consulting Group)

작동하는 에이전트 워크플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알아보는 언어로 작동을 입증할 수 있는 워크플로는 훨씬 적습니다. 이 간극 때문에 첫 번째 물결 이후 자동화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결과는 실제지만 이를 보여줄 측정 체계를 처음부터 마련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 투자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AI 가치 레이터를 공유합니다. 안전성, 실행 가능성, 재무적 영향, 명확한 소유권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며, 처음부터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선택하는 6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준선을 알 수 있고 결과를 귀속할 수 있는 워크플로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구축 팀만이 아니라 CFO에게도 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기술은 혁신에서 눈에 보이는 끝부분일 뿐입니다. 소유권, 운영 모델,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이 나머지 가치를 실제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 실행 가능성뿐 아니라 입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구축 전에 기준선을 파악합니다 / 안전성, 실행 가능성, 재무적 영향, 명시된 소유권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6단계 가치 레이터를 적용합니다 / 비즈니스가 이미 사용하는 언어로 측정해 결과가 구축 팀뿐 아니라 재무팀에도 전달되게 합니다 / 사람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이유와, 실제 가치를 내려면 구조적인 비용 절감과 산출물 품질 향상이 모두 필요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 서류상으로는 유망해 보이지만 비즈니스 성과에 절대 귀속할 수 없는 워크플로를 찾아냅니다

15:30-16:15 • Community Lounge • 액티비티

빌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커뮤니티 오픈 마이크

Builders Don't W8: Community Open Mic

Jacq Vaca (n8n)

수동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해봤다면, 바로 이 자리가 맞습니다.

모든 커뮤니티 빌더를 초대합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워크플로를 공유하고, 어떤 에이전트 또는 아주 간단한 자동화가 비즈니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는지, 혹은 매주 몇 시간을 절약해주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각 발표자는 약 15분 동안 자신이 마주한 문제와 이를 자동화한 방법을 공유하고, 워크플로를 라이브로 시연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해결책을 만드는 빌더들을 함께 축하해요.

참고: 참가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일 Community Lounge Info Desk에서 오픈 마이크 슬롯을 신청하세요.

→ 실용적인 자동화 아이디어를 배웁니다 / 다른 빌더와 팁과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 n8n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자동화 영감을 얻습니다

15:40-16:20 • Builders • 토크

에이전트 하나에 일이 너무 많다면: n8n에서 Nate 다시 구축하기

One Agent, Too Many Jobs: Rebuilding Nate on n8n

Krystian Slowik (n8n)

간단한 헬프데스크 티켓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n8n의 훌륭한 사용 사례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모든 유형의 티켓을 처리하던 시스템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고, 기능을 독립적으로 전문화하고 평가하고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발표에서는 n8n의 지원 엔지니어링 팀이 고객 지원 워크플로에 내장된 AI 어시스턴트 Nate를 하나의 범용 에이전트에서 전문 에이전트 팀으로 다시 구축한 방법을 다룹니다. 모두 n8n 자체에서 구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Nate 2.0 아키텍처를 살펴봅니다. 라우터를 구동하는 의도 분류기와 3단계 10개 카테고리 분류 체계, 분류기에서 전문 에이전트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카테고리별 플레이북을 다룹니다. 플레이북은 런타임에 가져오는 Markdown 템플트이므로 에이전트 동작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도에 걸친 티켓을 peer-to-peer agents-as-tools로 처리하는 방법, 에이전트 간 핸드오프, 구로 취소 같은 고위험 동작을 위한 보호 장치를 보여드립니다. 파괴적인 도구 호출 전에 신원을 확인하고, 동일한 동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맥동성 가드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드투엔드 테스트 스위트가 n8n 워크플로로 실행되는 방식도 소개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n8n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고, 평가가 실제 인프라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구 결과를 모으는 처리하며, LLM judge가 티켓별 루브릭에 따라 답변을 채점합니다.

→ 하나의 범용 에이전트가 규모가 커질 때 무너지는 이유와 전문화가 제공하는 이점을 이해합니다 / 3단계 10개 카테고리 분류 체계로 티켓을 전문 에이전트에 라우팅하는 Nate 2.0 아키텍처를 확인합니다 / Markdown 기반 플레이북으로 코드를 재배호하지 않고 런타임에 에이전트 동작을 바꾸는 방법을 배웁니다 / 신원 확인과 반복 동작을 막는 맥동성 가드를 포함해 고위험 동작에 적용한 보호 장치를 알아봅니다 / 의도 도구 결과와 LLM judge를 사용해 답변을 채점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n8n 워크플로로 엔드투엔드 테스트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16:00-16:40 • Main • 패널 ★ 추천

자동화 문화를 만드는 법

Building an Automation Culture

Dana Harrison (Telus), Jay Leiner (nCino), Tobias Huck (Bosch Digital), Lindsay Keim (n8n)

기업 전반에 자동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입니다. 소수의 열성적 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파일럿과, 서로 다른 시스템과 역량, 위험 감수 수준을 가진 수십 개 팀의 2,000명 빌더가 실제로 활동하는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이 패널에는 후자의 일을 실제로 해낸 실무자들이 모입니다. 첫 번째 물결 이후에도 도입을 지속하게 만든 문화적 변화, 빌더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지킨 거버넌스 선택, 출발점이 크게 다른 팀 전체의 역량을 키운 지원 모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셀프서비스 인프라와 커뮤니티 주도 운영처럼 사용자 기반 자체를 지원 시스템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패턴도 다룹니다. 또한 관측 가능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텔레메트리가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팀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동화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도록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 첫 번째 열성 사용자 집단 이후에도 자동화 도입이 지속되게 만드는 문화적 변화를 이해합니다 / 빌더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거버넌스 선택을 배웁니다 / 출발점이 크게 다른 팀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지원 모델을 알아봅니다 / 사용자를 지원 시스템으로 바꾸는 셀프서비스 인프라와 커뮤니티 주도 지원 같은 구체적인 패턴을 확인합니다 / 텔레메트리와 관측 가능성이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파악하고, 팀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합니다

16:00-16:30 • Automation • 토크

실제로 엔지니어링하는 에이전트 만들기

Engineering Agents That Actually Engineer

Dirk Slama (Bosch)

에이전트 기반 엔지니어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만났을 때 중요한 질문은 추론을 실행과 검증된 결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추론 표현, 에이전트와 도구를 통제된 방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구조, 기능 안전성-복원력-추적 가능성-인간의 책임성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Bosch, n8n, NVIDIA, HPE, AVL, Kaizenx, RemoteIVLabs가 함께하는 digital.auto의 Forge 프로젝트에서 발전하고 있는 에이전트 기반 엔지니어링 플랫폼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n8n은 추론, 실행, 관찰, 테스트, 개선을 연결하는 에이전트 기반 백본을 제공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를 임베디드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 수준 진단과 통합하는 동시에 장애 복구와 human-in-the-loop 게이트를 지원합니다.

Forge를 자동차 분야의 레퍼런스 구현으로 삼아, 실행 가능한 차량 모델과 엔지니어링 인프라에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실용적인 패턴을 공유합니다. 자동차를 넘어 복잡한 물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링하는, 에이전트 데모에서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 n8n을 에이전트 기반 백본으로 사용해 AI 에이전트를 복잡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연결하는 구체적인 아키텍처 패턴을 배웁니다 / 실제 임베디드·시뮬레이션·진단 도구 전반에서 추론, 실행, 테스트, 개선이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되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 복구, human-in-the-loop 게이트, 추적 가능성을 포함해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을 프로덕션에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실용적인 보호 장치를 이해합니다 / 자동차 Forge 프로젝트를 참고해 에이전트 데모에서 물리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엔지니어링으로 나아가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경로를 알아봅니다

16:00-16:40 • Sync • 토크

n8n으로 자기 치유형 리서치 에이전트 만들기

Building a Self-Healing Research Agent in n8n

Clelia Astra Bertelli (Qdrant)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발표자는 n8n으로 자기 치유형 리서치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Discord 사용자가 에이전트의 피드백 루프를 완성합니다. 모든 답변에 사람의 판정이 내려지고, 그 판정은 에이전트가 검색하는 동일한 백엔드 스토어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의 컬렉션에 에이전트의 실행 이력, 평가 세트, 학습 신호를 모두 담고, 사람은 작성자로 참여합니다.

단일 payload 필더가 과거 실패와 과거 성공을 따로 검색하므로, 새로운 실행은 매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전달받습니다. 파인튜닝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표자는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석자는 자신의 Discord 서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import 가능한 워크플로, 설정 README, 명확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 하나의 컬렉션을 에이전트의 실행 이력, 평가 세트, 학습 신호로 활용하고 사람이 작성자로 참여하는 자기 치유형 에이전트 루프의 작동 패턴을 배웁니다 / 과거 실패와 성공을 따로 검색해 새로운 실행에 두 정보를 모두 전달하는 하나의 필드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 자신의 Discord 서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import 가능한 워크플로, 설정 README, 명확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돌아가입니다

16:30-17:15 • Logic Room • 피쳐 킨

Feature Kitchen: 개발 라이프사이클 • 테스트

Feature Kitchn: Development Lifecycle - Testing

James Gee (n8n), Fabian Puehringer (n8n)

16:30-17:15 • Flow Room • 피쳐 킨

Feature Kitchen: n8n의 차세대 실행 엔진

Feature Kitchen: n8n's Next Execution Engine

Michael Siega (n8n)

팀들은 점점 더 큰 규모와 높은 안정성이 필요한 워크로드를 n8n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n8n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구성과 안정적인 확장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워크플로 실행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산 이벤트 기반 모델을 바탕으로 실행을 격리하고 더 유연한 흐름 제어를 지원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실제 설계 트레이드오프와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계획을 공유하고, 이러한 결정을 함께 살펴으며, 향후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공하려는 규모와 안정성, 그에 따른 트레이드오프, 시스템을 발전시키면서 호환성을 유지하는 균형, 새로운 실행 엔진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기능에 대해 논의합니다.

→ 내구성, 안정적인 확장성, 실행 격리라는 n8n 새 실행 엔진의 목표를 이해합니다 / 새 엔진의 분산 이벤트 기반 모델이 더 유연한 흐름 제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배웁니다 / 규모와 안정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제 설계 트레이드오프를 확인합니다

16:30-17:15 · Community Lounge · 액티비티

Fox Challenge: 아직 해결책부터 만들기 마세요

The Fox Challenge: Don't Build the Solution Yet

Sebastian Hahn (FreeFlowCode), Ufuk Oren (NeoRebels)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빠르게 답을 찾는 것이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해결책 모드로 들어가면,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처음 떠오른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다듬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이 실습형 워크숍에서는 그 긴장감을 직접 경험합니다.

같은 간단한 LEGO 블록 세트를 사용해 짧은 만들기 과제를 연속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열린 문제에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지,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드와 결정을 내리는 모드를 의도적으로 오갈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차이, 두 사고가 모두 필요한 이유, 특정 상황에 실제로 어떤 모드가 필요한지 알아보게 됩니다.

Explorer Mode와 Decision Mode 사이를 오가는 간단한 사고 모델을 익혀, 적절한 가능성을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전에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차이, 그리고 두 사고가 모두 필요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 상황에 Explorer Mode와 Decision Mode 중 어떤 사고 모드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법을 배웁니다 / LEGO 만들기 과제를 통해 사람들이 같은 열린 문제에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지 직접 경험합니다 / 해결책을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내도록 Explorer Mode와 Decision Mode 사이를 오가는 간단한 사고 모델을 익힙니다 /

16:35-17:15 · Builders · 토크

채팅 앱을 떠나지 않고 자동화 만들기

Build Automations Without Leaving Your Chat App

Milorad Filipović (n8n), Liam McGarrigle (n8n)

자동화를 만들려면 보통 하던 일을 멈추고 캔버스를 연 뒤 노드를 연결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컨텍스트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이 번거로워 자동화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n8n의 인스턴스 수준 MCP 서버는 이 작업을 이미 사용 중인 공간으로 옮겨줍니다. 채팅 앱에서 원하는 것을 설명하면 워크플로가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생성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채팅 창에서 워크플로를 만들며, 빠른 일상 자동화부터 더 복잡한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까지 다룹니다. 그 과정에서 MCP 서버가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몇 가지 팁과 여전히 에디터를 열어야 하는 경우를 배웁니다.

채팅 우선 방식이 가장 빠른 경로인 때와 그렇지 않은 때, 그리고 자신의 인스턴스에서 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 캔버스로 컨텍스트를 전환하는 일이 자동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흔한 이유인 까닭을 이해합니다 / 채팅 앱에 연결했을 때 n8n의 인스턴스 수준 MCP 서버가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 채팅 창에서 일상 자동화와 더 복잡한 AI 에이전트 워크플로를 직접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 채팅 우선 방식이 가장 빠른 경로인 때와 여전히 에디터를 열어야 하는 때를 구분합니다 / 자신의 n8n 인스턴스에서 MCP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6:50-17:20 · Main · 토크

업무 흐름 속 에이전트: Microsoft Agent 365로 n8n을 안전하게 확장하기

Agents in the Flow of Work: Securely Scaling n8n With Microsoft Agent 365

Oliver Dörr (Microsoft), Raphael Gomez (n8n)

세션 세부 내용은 아직 최종 조정 중입니다. 행사에 가까워지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16:50-17:20 · Automation · 토크

에이전트 영향력: 통제를 전제로 설계하기

Agent Influence: Design for Containment

Michael Frostbutter (n8n)

대부분의 보안 모델은 공격자가 먼저 침입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자율 에이전트는 이미 인증되고 자격 증명을 갖춘 상태로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실행되며, 수년간 강화해 온 시스템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누군가 경계를 뚫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신뢰받던 에이전트가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조직 전체에서 n8n을 운영하는 팀에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니다. 네 가지 통제 지점을 다룹니다. 샌드박스화되고 격리된 코드 실행을 통한 통제, 인스턴스 수준이 아닌 프로젝트 수준의 자격 증명 범위 설정, 에이전트가 무엇을 호출했는지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실행 관측 가능성, 그리고 외부 영향의 주요 경로인 프롬프트 인젝션입니다.

이는 n8n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n8n을 솔직한 사례 연구로 활용해 플랫폼이 현재 제공하는 것, 아직 남아 있는 열린 질문, 에이전트 배포가 확대될 때 지속 가능한 해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 이미 인증되어 환경 내부에 있는 자율 에이전트에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이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해합니다 / 프로덕션에서 에이전트를 보호하는 네 가지 통제 지점인 통제, 자격 증명 범위 설정, 실행 관측 가능성, 프롬프트 인젝션 방안을 배웁니다 / 샌드박스화되고 격리된 코드 실행이 에이전트가 침해되었을 때 가능한 행동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스턴스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준에서 자격 증명 범위를 설정하면 영향을 받은 에이전트의 피해 범위를 왜 줄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현재 n8n의 기능 수준과 에이전트 배포가 확대될 때 남은 열린 질문을 파악합니다

16:50-17:20 · Sync · 토크 ★ 추천

에이전트에게는 손이 필요하다: n8n을 결정론적 커널로 활용한 개인 세컨드 브레인

Agents Need Hands: A Personal Second Brain With n8n as Its Deterministic Kernel

Michael Gross (DOT MG UG)

에이전트는 생각할 수 있지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자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25년 인생을 아우르는 개인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스캔한 문서 9,397개, 노트 3,289개, 고품질 시계 사업의 ERP, 완전히 전사한 YouTube 채널 두 개를 합쳐 검색 가능한 기억 37,554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3D 은하로 시각화하고, 클라우드와 API 비용 없이 전부 로컬 모델로 답변합니다.

n8n은 이 시스템의 결정론적 커널입니다. MCP Server Trigger가 8개의 워크플로를 어떤 에이전트든 호출할 수 있는 도구로 바꾸고, Switch 기반 라우터 연쇄가 각 질문이 어디로 갈지 결정합니다. LLM을 핫 패스에 사용하지 않고도 66/68의 재현 가능한 라우팅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실행 로그는 에이전트가 발표자에게 한 모든 거짓말을 포착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발표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실제 워크플로 그래프를 보여주고, 비결정론적 벡터 검색, 스테밍 폭주, 지어낸 사실처럼 며칠 밤을 빼앗아 간 합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은하가 스스로 이동하고 Telegram이 주머니 속에서 질문에 답하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연합니다.

→ MCP Server Trigger 패턴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n8n 워크플로가 에이전트가 호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 재현 가능한 정확도를 제공하고 핫 패스에 LLM을 사용하지 않는 결정론적 질문 라우터 연쇄를 이해합니다 / 비결정론적 벡터 검색, 스테밍 폭주, 지어낸 사실처럼 이런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합정을 알아봅니다 / 스스로 이동하는 3D 기억 은하와 Telegra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하는 전체 시스템의 라이브 데모를 봅니다

17:30-18:00 · Main · 클로징 세션 ★ 추천

미래의 일

The Work of the Future

Nancy Giordano (Play Big, Inc.)

18:30-19:30 · Market · 액티비티 ★ 선택

Flowgrammer의 Flow4Gold 피날레

The Flowgrammer Presents: Flow4Gold Finale

Max Tkacz (Flowgramming Studios), Marcel Claus-Ahrens (aicellence)

Flow4Gold 전당포에서는 n8n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워크플로 템플릿을 Max Tkacz(The Flowgrammer)와 Marcel Claus-Ahrens(Dr Pure Eval)에게 실시간으로 리뷰받고, 24K 금괴 1트로 이온수를 받을 기회를 거릅니다.

워크플로는 10월 1일 전에 <https://theflowgrammer.app.n8n.cloud/form/Flow4Gold>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에는 크리에이터가 Flow4Gold 심사위원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발표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며, 실제 금을 놓고 경쟁합니다.

제출할 워크플로가 없나요? 그래도 들러서 라이브 리얼리티 쇼 활용을 구경하세요.

→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취약한지에 대해 심사위원이 실시간으로 직접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 빌다가 내리는 트레이드오프와 판단 중 점소에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18:45-19:45 · Builders · 액티비티

자동화 릴레이

The Automation Relay

Luca Tomasino (n8n)

두 팀, 하나의 워크플로. 팀원들은 5분마다 키보드 앞자리를 바꾸고, 다음 빌더는 캔버스를 읽은 뒤 계속 작업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워크플로는 만든 사람만 읽게 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여러분이 멈춘 지점부터 이어서 작업해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에서 시험합니다.

팀워크와 약간의 혼란을 예상하세요. 바로 그 점이 이 레이스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자동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거나, 현장에 와서 팀에 합류하세요.

참고: 참가자는 팀마다 노트북 한 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팀에 참여하려면 Community Lounge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하세요.

→ 영리한 워크플로보다 읽기 쉽고 스스로 설명되는 워크플로가 중요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 시간 압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자동화 로직을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 직접 확인합니다 / 처음 보는 사람이 워크플로를 쉽게 이해받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습관을 파악합니다 /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실용적인 이름 지정, 구조화, 문서화 습관을 배웁니다 / 자신의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시간 협업 형식을 경험합니다